DEC 20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1010 1982년 12월 20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Monday, December 20,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김대중씨 금주중 보스톤?

워싱톤원했으나 측근들 권유

"병세악화 아니다"이희호여사 밝혀

(워싱톤D.C.)16일 청주교도소에서 출옥, 서울대병원에 입원중인 김대중씨는 빠르면 금주중에 미국에 올 수 있다고 김씨의 부인 이희호여사가 워싱톤의 김씨 측근에 전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 측근은 이희호여사가 전화에서 "김씨가 병세악화로 출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면서 김대중씨는 미국에서 워싱톤D.C.에 체재할 것을 원했으나 주변에서 보스톤을 강력히 추천했다고 말했다.

매사추세스종합병원 유력시

미국무성, "어떤 비자라도 발급"

(뉴욕지사)미국무성 영사과 존·콕필드 대변인은 16일 "김대중씨와 그의 가족이 미국비자를 신청하면 어떤 종류의 비자도 내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대중씨의 미국체재중 행선지와 정확한 일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신병치료를 위해 보스톤 매사추세츠종합병원이 가장 유력시 된다.

하버드대학 근교에 있는 이 병원은 뉴·잉글랜드지방의 유명병원으로 과거부터 저명인사들이 입원했었다.

이 병원의 한 당국자는 16일 "오는 25일까지의 예약자 명단에 김씨의 이름은 포함 안되어 있으나 급한 환자일 경우는 특별조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씨가 미국에 도착한 후 가장 우선적으로 찾아 체재지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지는 하버드대학 라이샤워교수(전 주일대사)는 현재 보스톤을 떠나 여행중이다.

미국막후작용 주효

뉴욕타임스 보도

한국정부의 김대중씨 출옥조처는 미국정부의 막후작용이 주효했다고 미국신문들은 보도했다.

뉴욕타임스지는 16일자 동경발 헨리·스토크기자발 보도에서 "지난 4월 방한한 미국의 죠지·부시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에게 김대중씨의 석방을 건의했고, 리차드·워커 주한미국대사도 수차례 한국정부에 김씨 석방을 건의했었다"고 보도했다.

◆16일 청주교도소에서 출옥,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김대중씨. 김씨는 금주중에 가족들의 희망에 따라 미국에 갈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대중사건」 일지

▲1980. 7.9－내란음모 국가보안법 반공법 외환관리법 계엄법등 위반혐의로 구속.

▲1980. 7.12－육군본부 비상계엄 보통군법회의에 구속송치(육군교도소수감)

▲1980. 9.17－1심선고 사형(육군계엄보통군법회의)

▲1980. 11.3－2심선고 기각·사형확정(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1981. 1.23－3심선고 사형확정(대법원)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

▲1981. 1.31－청주교도소로 이감.

▲1982. 3.3－대통령 특별사면조처로 무기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

◆병세

70년도 교통사고로 발병한 관절염, 지병인 하지부총증및 이명증, 견갑관절부동절부증세.

교도소 수감전부터 치료하여 왔으며 교도소 수용중에도 약물투여 물리치료등 계속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8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금주의 행사▶

— 1982년 12월20일(월)~26일(일) —

◆12월24일(금) 하오7시 한맘성당 단체세례식
곳: St.Paul Church(83 Power St. Tor.)
연락처: 863－0415(천주교회)

◆25일(토) 하오6시 공동연말파티
주최: 한인라이온스클럽·골프클럽
곳: Kennedy Banquet House
(991 케네디로드X로렌스 동남쪽)
연락처: 277－4580(최호영)·298－3584(이기훈)

◆25일(토) 교육전도사 청빙 마감
베델교회(395 Old Yonge St.)
연락처 : 221－1382

오늘의 예금금리(11/18부터)

한인신용조합

기 간	신용조합	오투기정기예금	시중은행
30일	10.5%		9.5%
90일	11%		10%
180일	11%	10.75%	10%
365일	11%	10.75%	10%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은행보다 신용조합에 더만족"

중소기업 여론조사결과

캐나다의 은행들은 다른 선진국보다 중소기업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캐나다 중소기업과 협회가 16일 한 조사보고서에서 발표했다.

기업가협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캐나다은행은 미국, 일본, 서독등의 은행원들 보다 상업대부관계 훈련이 부족, 이관계의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기업가들은 일반시중은행 보다는 신용조합등 중소금융기관들에 더 만족하고 있다.

협회 가입한 6만4천 중소기업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한바에 의하면 일반시중은행에서는 로얄뱅크의 업무에 만족도가 76%로 가장 높고, 그외 CIBC(콤머샬은행) 72%, 도미니언 72%, 노바시코시아 70%이고, 몬트리얼은행이 가장 낮은 65%로 나타났다. 기타 전국은행에 대한 평균만족도는 74%이다.

반면 중소기업가들은 오히려 신용조합등 중소금융기관의 써비스를 좋아해 85%의 기업가들이 만족을 표시하고 있다.

협회 존·벌로회장은 "캐나다은행의 대부관계자들은 중소기업가와 긴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 더욱 연구해야 할것이다"고 말했다.

증권투자가에 대부

뉴욕에 5천만달러 특별기금

(서울 16일=연합)한국증권시장에 외국자본을 도입키 위해 정부는 뉴욕금융시장에 5천만달러 특별기금을 세울 계획이다.

재무부소식통은 16일 이 기금은 한국증권을 사려는 외국투자가들에 대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기금이 한국금융기관에 의해 운용될지 미국금융기관에 위탁운용될지는 아직 미정이다.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다이아몬드·순금
만찬대리점
약혼·결혼예물
귀국선물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양심범 전원석방

크리스마스 전후에

류 주미대사 밝혀

(시카고지사)정부는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김대중같은 입장으로 구속된 양심범 전원을 형집행정지나 사면으로 석방한다고 17일 류병현 주미대사가 말했다.

류대사는 이날밤 마이애미 동천식당서 가진 교포들과의 만찬 석상에서 김씨 석방과 관련, 다른 구속자들에 관한 질문을 받고 "정부당국이 국민총화를 위한 관용을 보이고, 또 국내 치안유지에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구속자도 석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대사는 또 "광주사태에 관련, 구속된 사람은 광주에 약 20명을 비롯, 전국에 모두 12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이날 만찬회에는 워싱턴의 이동익 총영사, 마이애미 한인회장 김대식씨등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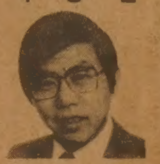
정부는 16일 김씨의 석방과 아울러 신병치료차 도미 허용을 발표한 성명서에서 "김씨 사건 연루자, 광주 사태관련자 등 기타 유사한 범법자들도 우리 사회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었다.

한국상품 수입규제

(서울 16일=연합)캐나다등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국들은 81년말 현재 한국의 총수출품목의 15%에 해당하는 152품목에 대해 수입규제를 가했다고 한국무역협회가 15일 발표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년동안 한국의 총수출액의 24.4%가 캐나다, 미국, 일본, EEC등 19국에 의해 수입규제를 받았다.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엄마 말이 맞구나!

"괜찮아요. 그냥 갈래요."
"애는……혹시 비가 올지 아니?
귀찮더라도 우산 가져 가렴.
비가 오지않더라도 준비는 해 둬야해!"

조 규혁
(R)745－8236

강 경범
(R)279－7774

☎ 233~6236

- R.R.S.P(연금보험)
- WHOLE LIFE
- TERM LIFE INSURANCE
- 양로보험
- 모기지보험
- 자동차보험
- 상점·주택 화재보험

SOVEREIGN LIFE ASSURANCE COMPANY
A MEMBER OF THE CASCADE GROUP
Cloverdale Mall - Office Area, 250 The East Mall, Islington, Ontario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DEC 20 1982

오리엔탈팔레스탈세

「온」주법원, 3만불 벌금

블루어·스트릿에 있는 한인업소 나이트클럽이 주세를 포탈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15일 토론토 소재 온타리오지방법원에서 열린 오리엔탈·팔레스 탈세사건 선고공판에서 오스본(R. Osborne)판사는 이 업소에 3만달러의 벌금형을 내렸다.

온타리오 세무성은 오리엔탈·팔레스가 79년1월부터 82년8월까지 모두 44차례에 걸쳐 허위로 세무를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세무성 수사반에 의하면 오리엔탈·팔레스는 손님들로부터 받은 10%의 주세(술에 붙는 세금)를 금전출납기(캐쉬·레지스터)의 세금난에 찍지 않고 세금이 없는 음식비로 처리함으로써 3만달러의 세금을 포탈했다는 것이다.

제이콥·말리 수사반장은 17일 "시민들이 세금으로 낸 돈을 포탈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근절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리엔탈·팔레스 경영주 박인순 사장(토론토한인회장)은 "본 업소에 대한 영업규정은 총판매고가 주류판매 40%, 음식판매 60%의 비율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 판매고가 높은 주류매상액의 일부를 음식판매로 돌린 것 뿐이다.

이제는 규정이 60%:40%로 바뀌었으므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리엔탈·팔레스가 이번 사건으로 납부할 금액은 세금 3만달러와 벌금 3만달러등 총 6만달러이다.

한편 세무성 수사반의 데스챔수사관은 17일 본사를 방문, "일부 소매상의 판매세 포탈과 담배세 포탈에 대한 수사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면서 "담배세 포탈수사는 수사반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합동연말파티

라이언스·골프클럽

토론토 한인라이언스클럽(회장 서준경)과 토론토 한인골프협회(회장 김현모) 등 두 단체의 공동 연말파티가 오는 25일(토) 하오6시 개최된다.

장소는 케네디 빌루엣 하우스(991 Kennedy Rd. at Lawrence Ave. 동남쪽코너)이다.

파티는 크리스마스날인 이날 하오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계속된다.

회비는 1인당 $25이다.

연락처는 최호영(277-4580), 이기훈(298-3584).

세계어린이 질병사 2초에 1명꼴

(UN)유엔아동기금(UN Children's Fund)이 16일 발표한 한 보고서에 의하면 금년동안에 2초에 1명꼴로 세계각처에서 어린이들이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경향이 계속된다면 2000년도에는 영양이 극도로 불량한 어린이의 수가 적어도 6억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엔아동기금의 제임스·그렌트 국장이 쓴 이 보고서는 또 의학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세계 어린이의 많은 수가 과거보다도 현재 더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홍역, 디프테리아, 독감, 파상풍, 소아마비, 결핵등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도 매년 5백만명의 어린이가 죽어가고 있으며, 파상풍으로 숨지는 어린이만도 하루에 2,500내지 3,000명이나 된다.

레건에도 "죽이겠다"협박편지

타이레놀용의자 루이스, 새사실밝혀져

〈시카고-AP〉 13일 뉴욕에서 체포된 시카고 타이레놀중독사망의 용의자 제임스·루이스는, 레건대통령에게도 협박편지를 보낸 것이 새로이 드러났다.

수사당국은 14일 루이스가 수사망을 피해 도망다니던중 레건대통령의 정책에 반대,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편지를 배악관으로 우송했다고 밝혔다.

시카고에서 일자리를 찾는동안 타인의 소셜시큐리티번호를 불법사용한 혐의를 받고있는 루이스의 부인에게 시카고 연방지방법원은 5백만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으며 오는 22일을 재판일로 결정했다.

루이스는 하루뒤인 23일 뉴욕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루이스夫人도 자수

한편 루이스의 부인 리앤·루이스는 남편이 체포된 하루뒤인 14일 시카고에서 수사당국에 자수했다.

FBI는 제임스·루이스를 체포한뒤 매스컴을 통해 루이스의 부인이 자수하도록 호소했었다.

이로써 수사당국은 타이레놀제조회사인 존슨 앤드 존슨회사에 1백만달러 강요협박편지를 보낸 혐의로 미전국에 걸쳐 약2개월동안 수배중이었던 루이스부부를 모두 체포했다.

이색적 개업 자수화 가게

토론토 퀸 거리에 이색적 교포가게가 문열었다.

교포 김윤태씨가 자수화가게 「Kims Embroidery」(648 Queen St.W.)를 18일(토) 개업, 이날 하오4시 개업파티를 열었다.

Merry X-mas & Happy New Year

자동차 판매숫자 계속증가추세로

〈디트로이트〉 12월 들어 첫·10일동안 미국내자동차판매량이 13.1% 증가했으며 지난50일동안 계속 1981년의 같은기간에 비해 증가추세를 보였다고 14일 자동차업계가 발표했다.

社說 성탄절의 참뜻

보다 뜻다운 크리스마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성탄절이 다시 다가왔다.

성탄절이 되면 상가는 붐비고, 여러가지 종류의 모임과 파티로 축제기분에 들뜨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카드와 선물을 주고 받으며, 성탄절과 새해의 축복을 기원한다. 이러한 인정이 오고 가는 계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그러나 그것이 성탄절이 가져다 주는 의미의 전부라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슬퍼지고 쓸쓸해지는지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선물을 주고 받으며, 호화스런 파티에 초대받지 못하는 많은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은 고독한 사람들에게는 이 계절이 더욱더 외로움과 소외감을 더해주는 것밖에 없는 까닭이다.

성탄절은 결코 장사에 한몫을 보고, 육체적 쾌락을 즐기며, 심지어는 방탕과 타락으로 이끄는 불륜의 삶을 축제하도록 주어진 계절은 아니다. 오늘의 크리스마스가 지나치게 상업화되고 매춘화된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독하는 것이며,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그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 하겠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의 성탄절은 주인 없는 생일파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세속화되어 가고, 그 본래적인 의미를 상실해 가는 성탄절의 참된 뜻을 되찾는 운동을 조용히 벌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로, 성탄절은 하느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Incarnation)오신 날이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사람의 입장에서 인간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인간과 함께 있게 된 사건"(임마누엘)인 것이다.

오늘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가 서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려는 마음이 결여된데서 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부모와 자녀, 고용주와 고용인, 너와 나 사이에 이러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는 동정이 아쉽다.(Compassion)

둘째로,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써 단절되었던 하느님과 인간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새로운 화해(Reconciliation)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사람은 하느님과 단절됨으로 하느님의 형상(The Image of God)대로 지음받은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갈등과 양극화현상을 빚어내게 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특징과 비극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양극화 현상"이라 하겠다.

동과 서의 갈등, 남과 북의 양극화, 부자와 가난한 사람간의 차이는 점점 더 커지기만 한다. 이런 갈등과 양극화 현상은 우리 교포사회의 각 분야와 단체에서도 목격한다.

세째로,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날"(마 1:2)이다. 그가 땅에 오셔서 한 일은 바로 이 '구원의 사건"이다. 누가는 그의 구원의 사역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눈먼 자에게 보게함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함이다.」라고 요약하였다.

그렇다면 성탄절을 맞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세가지 사건"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기 위해 함께 있는 삶(Empathy)과 올바른 인간관계(Human relation)의 정립, 그리고 가난하고 억눌린 이웃을 찾아가는 도움과 구원의 손길이 있는 곳에 성탄절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금년도 성탄절에는 「너와 나」사이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Among Us) 이러한 축복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金聖鍾作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133>

출발 ⑭

"뛰어난 살인솜씨 다시 한번 발휘를…"

창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치과의사일뿐이요. 전문가라니 그건 잘못 보고 한 말이요.』

『부정하셔도 소용없읍니다. 우리는 선생에 대해 모든 것을 소상히 알고있읍니다. 선생은 보수만 합당하면 상대를 가리지 않고 누구라도 제거해주는 프로페셔널 킬러 아닙니까. 좀 비싸긴 하지만 그 정확성은 높이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과거의 일이요. 벌써 10여년전의 과거의 일이지요. 지금 나는 치과의사일뿐이요.』

『그러니까 그 솜씨를 다시 한번 발휘해달라는 겁니다.』

『마약은 내 분야가 아니예요.』

『분야가 아니더라도 선생은 충분히 해낼 수 있을겁니다. 선생은 아무리 어려운 일도 잘 해내지 않습니까. 과거 선생의 활약이 얼마나 눈부셨는가 하는것을 우리는 잘 알고있읍니다. 선생한테는 실패란게 없었지요. 안 그렇습니까? 분야가 아니라고 하지마 선생은 1970년대초 프렌치커넥션의 실력자를 제거함으로써 이미 마약 분야에 손을댄 셈이지요. 선생은 이번 일도 훌륭히 해낼 수있을겁니다.』

『난 자신 없어요.』

그는 머리를 저었다. 검은 안경은 빙그레 웃었다.

『편한, 말씀이지요. 선생은 충분히 해낼 수 있읍니다.』

『나는 그런 일에서 손을 떤지 오래됐어요. 그런 일은 정말 하기 싫어요. 더구나 강요된 짓은 딱 질색이란 말이요.』

『우리 부탁을 들어준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면 흥정은 어디까지나 자유로운 입장에서 하실 수 있읍니다. 거래니까요.』

창은 입을 다물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상대방 사나이는 그를 재촉하지 않고 그에게 충분히 생각할 수있는 시간을 주었다. 창이 결국은 응해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여유있는 태도를 취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창은 그답게 판단이 빠른 사나이었다. 그는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벌써부터 깨닫고 있었다. 단지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고있는 것은 감정을 차갑게 냉동시키기 위해서였다.

『그 여자를 언제돌려줄거요?』

한참만에 침묵을 깨고 그가 물었다.

『일이 끝나는대로…』

늙은 사나이는 시가를 뻑뻑 빨아댔다.

『만일 실패하면?』

『여자를 돌려줄 수없읍니다.』

『그럴테지.』

아까와는 달리 그는 얼굴에 분노의 빛을 드러내지 않았다.

『흥정을 시작합시다. 우선 어떻게 해서 그 물건을 잃어버리게 됐는지 그것부터 이야기해주시오. 그러고나서 값을 결정합시다. 값이 결정되면 참고가 될만한 것들을 빠짐없이 이야기해주시오.』

『그리고 가능한한 자료도주시오.』

『좋습니다. 이제야 이야기가 통하게됐군요.』

늙은 사나이는 천장을 향해 담배연기를 후우하고 내뿜었다. 만족해하는 표정이었다.

朴男 그림

영하추위에 버려진 신생아

병원으로 옮겨져 기적 회복

생후 6시간된 백인 여자아기가 16일 영하의 날씨에 발가벗긴 채로 버려져있다 발견되어 식·칠드런병원으로 옮겨져 가료중이며 17일 현재 양호한 상태이다.

5.5파운드의 이 아기는 노스·욕의 유진·스트릿의 큰 트레일러 밑에 얼음이 깔린 웅덩이에 내버려져 있었다.

아기는 버려질 때 찰과상을 약간 입었을 뿐 얼굴의 핏자국은 출생당시 입은 상처인 것으로 의사들은 보고있다.

16일 식·칠드런 병원의 의사들은 아기의 이름을 성탄을 뜻하는 홀리(Holly)라고 지었다.

경찰은 아기의 어머니가 다급한 상태에서 혼자서 출산한뒤 아기를 버린 것으로 보고 단서를 추적하고 있다.

병원 직원들은 낮은 기온이 아기의 체내 기능을 다소 둔화시켜 오히려 극적 회생에 도움을 주었으며, 만약 보다 늦게 발견됐더라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기를 발견한 노스·욕의 로날드·율(52)씨는 "새벽 7시 직장인 칼레도니아 로렌스의 페인팅회사에 도착, 웨어하우스 쪽으로 걸음을 옮기는 순간 고양이 울음소리같은 것이 들렸다. 또다시 울음소리가 들려 트레일러 밑을 들여다 보니 아기가 누워있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고 회술했다.

아기의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아기는 칠드런즈·에이드·소사이어티로 넘어간다.

◆트레일러 밑의 웅덩이에서 아기를 발견한 율씨. 그는 처음 울음소리를 들었을때는 고양이 울음소리인줄 알았다고 말했다.

소망교회 탄생 19일 창립예배

대한예수교장로회 토론토 소망교회라는 또 하나의 교회가 설립된다.

오는 19일 하오5시 St.Giles Anglican Church(35 Kecala Rd.)에서 창립예배를 갖는 소망교회는 서인구 목사가 담임한다.

소망교회의 전화번호는 752-9860, 752-9727이다.

구독은 533 2361

현영일 경영회사 송순태씨 로고당선

현영일 국제경영 콘설탄트의 로고 현상모집에 칠성광고의 송순태씨가 당선되었다.

500달러의 상금을 타게된 송씨는 8명의 응모자중 353점으로 최고득점했었다.

◆16일 아침 노스·욕의 얼음 깔린 웅덩이에서 발가벗은 채로 발견된 생후 6시간의 신생아. 경찰은 아기의 어머니를 찾고 있다.

남여노소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중공산 진품

■우황청심환(중국 천진산) 도매가격 $15.

■직접수입 녹용진품

*요즈음 유행인 일반 남녀노소 감기 치료, 한약 특재사용 치료

643 A- BLOOR ST. WEST, TORONTO (신용조합옆) B) 536 6854 R) 743 0752 한의사 서춘봉

하르빈한약상사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제 언〉 하나로 뭉친 힘을 (상)

—실업인협회와 상공인협회에 말한다—

김 철 수 (토론토 실업인)

◆김철수씨

실협과 상협은 당사자들이 무엇이라 변명할지라도 같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같은 협회가 하나도 힘이 드는데 왜 둘이 필요하냐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민족적 문제점이 뿌리를 이루고 있다.

좀더 기반을 빨리 구축한, 어쩌면 영리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좀더 발전하기 위하여 끼리끼리 모이자는 것이다.

이 끼리 밖에 있는 소외당한 사람들의 기분은 생각해볼 수 없는가? 소위 협회를 만들어 단체의 장이 되어 사회의 지도자격 위치에 있으려면 포용력이 있어야 하며, 역사를 통한 사고의 폭과 깊이를 가져야 한다. 또한 적어도 개구리가 올챙이 때 정도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포용의 문턱을 넘길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빈 몸뚱이로 왔다. 어쩌다 운도 만나고, 열심히도 뛰어 남보다 나은 현실적 성장을 보았다. 그래서 올챙이때를 넘어선 사람들끼리 뭉치어 어쩌면 올챙이들을 무시한채 끼리끼리 모였다.

인간의 운명은 인간의 또다른 노력과 운에 의하여 바뀐다. 그 올챙이들이 성장하여 개구리를 뛰어넘어 두꺼비가 되었을 때 그 두꺼비들이 개구리를 무시한채 끼리끼리 모였다 가상하자. 오늘 개구리들(상협)의 그 끼리끼리 모임은 바로 두꺼비들(제3의 협회)의 끼리끼리를 태동시키는 요인이 되며, 자기가 남에게 당하게 한 것은 그대로 당케 되는 요인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분열이며, 혼란이며, 무질서이다.

우리는 50년, 100년, 200년의 이민역사를 이룩한 기존세력에 비하면 오늘 우리들의 개구리, 두꺼비의 성장은 올챙이 같이 하잘것 없다. 과연 한 울타리 안에서 같이 이끌며 위로하며 격려할 수 없는가?

우리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고귀한 것들이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물거품같이 사라질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우리는 새로움을 시도코저 할 때 이미 선배들이나 선조들의 노력을 존중하고, 비판할 것이 있으면 그 속에서 비판하는, 그리곤 그들의 공든 탑을 존중하는 기초 위에 서야 한다.

기반구축한 기업인

격려로 후배 이끌어야

거의 10년이라는 세월동안 알게 모르게 희생당한 노력과 체험들이 있다. 이것들이 왜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될 수 없으며, 이것들이 우리 모두 합하여 새로이 도약하게 될 새 전군에 초석이 될 수 없어 쿠데타가 필요한가? 우리는 과연 쿠데타가 항시 필요한 민족인가?

역사는 반복이며, 곧 증거이다. 오늘 우리 모두가 공든 탑을 세운 자그마한 노력일지라도 그 노력을 존중하지 않는 새로운 쿠데타가 우리에게 오늘 인정되어지면 내일 우리는 나의 것을 존중치 않는 새로운 쿠데타가 우리 환경속에서 인정되어져야 한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 앞에 우리의 주장, 고집, 각종 도구들을 놓고 이성을 회복해야 한다. 곧 그것은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새로운 업, 새로운 모임, 새로운 이슈가 없어서 발전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하고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하며, 개발하지 못하여 발전할 수 없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단호히 하나이어야 하며, 이미 누구보다도 먼저 기반을 구축한 상협의 선배들은 사고의 폭과 도량면에서도 선배가 되어 아직 올챙이를 모면 못한 후배들을 한 울타리안에서 격려하며, 지도해 주어야 한다. 바로 그 용기와 결단은 선배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며, 역사의 창조는 바로 그러한 용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계 속)

캐나다속의 참된 한국인의 목소리
-토론토 한국일보-

◆새봄을 주름잡을 유행 – 내년 봄의 의상은 주름패션이 한몫을 차지할듯. 오스카·들라·렌타가 선보인 신부의상과 들러리소녀의 옷에도 주름장식이 달렸다.

性教育 모두 말합시다

父母와 子女가 함께읽는 시리즈

梅毒은 3代 피에서도 양성반응

언론계에 몸 담고 있었던 어느 분이 급히 찾아오셨다. 용건은 따님이 재학을 졸업하고 취직시험을 치렀는데 신체검사에서 떨어졌다는 것이다. 그것도 이유가 혈액검사결과에서 매독 반응이 양성으로 나왔기 때문이라는것. 그 아버지의 말씀인즉 그것은 분명 선천성매독일것이며 그아이가생길 무렵 자신에게 성병이 있었기때문일것이라는 말씀이다. 알아보니 과연 선천매독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판명되기는 하였다. 병원측에서는 『그러니 요새 젊은이들은 신용할 수가 없다. 그렇게 순진한줄만 알았던 애(대학졸업생이지만) 가 이럴수가…』하였다는 얘기다. 본인에게는 혈액반응 외에 별달리 나타나는 증상이 없어 취직은 되었다. 그러나 부모에게서 유산(?)을 받은 셈인데 이 반응은 평생 없앨 수는 없는 것이다.

이보다 더 비참한 유산을 받게 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으나 이런 현상도 자식의 입장에서야 억울하기 그지없는 일이 된다. 더구나 비슷한 예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반응을 가진 여성이 정상적인 남성과 결혼을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이 반응이 아이들에게 다 딸려나왔다는 경우가 있었다. 안타깝기만 하다. 결국 외할아버지의 방탕한 생활에 기인, 삼대를 내려가고 있는것이다.

이런 경우 혈액에서 반응이 양성으로 나왔다하여 자녀들이 발병을 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하물며 삼대째까지 갔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없는 것 보다 나을리는 물론 없고 이때의 어머니의 심정은 또 어떠랴 싶다.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평생 죄인같은 느낌일 것이다. 자신에게 잘못이 전혀 없었는데도 말이다.

선천매독은 임신하기 전에 어머니에게 병이 있었을때보다 임신중에 새롭게 감염이 되었을때 더 심하게 아이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혈액반응에만 나타나는 정도가 아니라 선천매독의 증상을 갖게되는 것이다. 따라서 임신중에 병이있음을 알았을때는 속히 필요한 치료를 해야 한다. 적합하게 치료한다면 태아에게는 전염을 안시킬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 즉 남편이다.

임신한 여성이 다른남성과 관계를 가져 자신이 직접 병을 전염시키는 예는 아마 거의 없다고 보아야한다.

대체로 남편이 병을 가져오는 경우다. 성병들이 워낙 만성병이어서 자칫하면 기회를 놓치기 쉬우나,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고 자신에게 그럴 수 있는 사실이 있었다면 이를 속히 밝혀 병의 여부를 알아 봄은 물론, 아내 또는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야한다. 더 확대가 되기 전에 죄의 댓가를 치러야할 것이다. 결코 대대 유산으로 남겨 원망받는 할아버지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 합니다
김장김치 주문환영
해밀톤지점 ☎: 1-385-1485
서부지점 ☎: 243-95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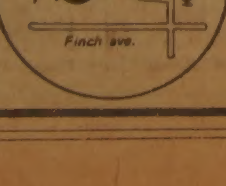
적은 비용으로 알찬효과를 보는 한국안내광고란

·밍크·폭스·세블·라쿤
밍크
록키모피
오더 메이드 전문공장
정승규
315 ADELAIDE STREET WEST
TORONTO TEL 593-0189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 532-0210 손병헌

20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NORTH YORK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 745 : 7400)
*사고차량 완전수리, 페인팅 (OVEN BAKED FINISH)
*수리중 차량대여
*각종차량 일체취급
*사고시 전화문의 환영
215 TORYORK DR.
One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d.
☎ (S) 749-0555
(R) 881-4053
송 대 헌



都市재개발法 會期內 처리

與野합의 싯가補償등「少數의견」단서붙여

국회建設委小委에서 修正案을 채택하고도 民韓黨의 반대로 難航을거듭했던 都市再開發법개정안은 15일하오 열린 10人小委에서 野黨측代案을 少數의견으로붙여 修正案을 처리키로 의견을모음으로써 완전타결됐다.

이날 10人小委는 民韓黨이 낸 4개項과 국민당과 議政同友會의 1개項의 少數의견을 위원회 심사보고서에 「表決을 전제로 하지않는 少數의견」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국회는16일 建設委전체회의를열어 修正案을 채택한데 이어 이번 會期중에 개정안을 처리하게 됐다.

◇15일 국회본회의에서 의원들이 金俊成부총리와 姜慶植재무장관의 解任案을 투표하고있다.

金부총리·姜재무 解任案
民正黨 반대로 否決

국회는 15일 하오 본회의를 열고 民韓黨과 議政同友會가 賣名制파동의 책임을물어 공동발의한 金俊成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姜慶植재무장관에 대한 解任案을 각각표결에 붙여 否決시켰다.

이날表決에서 金부총리 解任案은 在席2백58표중 可89, 否1백67, 기권1, 무효1표로, 姜장관에 대한 해임안은 在席2백58표중 可88, 否1백68, 기권2표로 각각나타나 부결되었다.

政治활동 被규제자 解禁건의안을 제출
국민·同友會

史上最大규모 내년2월~4월、航母2隻도
팀스피리트83 兵力18萬참가

日 防衛費 7% 增額
나까소네「GNP의 1%」制限 철폐

【東京=宋孝彬특파원】나까소네·야스히로(中曾根康弘)새 일본내각은 내년부터 방위예산을 대폭 증액키로 했다.

나까소네수상은 14일 衆議院 예산위원회에서 방위비문제에 관해 답변하면서 『일본의 방위노력이 미국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입국들에비해 불충분하다』고 시인하고 내년도 방위예산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 올해에 비해 7%善의 증가율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는 84년에는 방위예산의 GNP1%이내 억제원칙을 철폐할 방침임을 밝히면서 『일본의 방위정책은 방위계획大綱의 달성에 있는 만큼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81방위력증강 5개년계획」실행과정에서 GNP 1%한계에 부딪치면 이를깨뜨릴수밖에없다』고덧붙였다.

나까소네수상은 그밖에도 개인적으로 개헌을 지지하고 있음을 거듭 확언했다.

◇全대통령이 韓美野戰司를 방문,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年末年始경계 빈틈없이"
全대통령、中部前線시찰 將兵격려

全斗煥대통령은 14일의 東部전선에 이어15일 상하오에 걸쳐 韓美野戰軍사령부와 중부전선의 2개 육군부대를차례로방문, 軍의경계태세등을 점검하고 장병들을격려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이들부대에서 부대장으로부터 최근의 북괴군의 동향, 북괴군능력및 활동분석과 이에대비한작전계획을보고 받은뒤 연말연시를 맞아 북괴군의 동향을 예의주시 경계태세를 철저히해야할것이라고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특히 『有事時에는 初戰에 敵의 피해를 극대화시키는 반면 我軍의 피해를 최소화할수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하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또 『북괴는 최근 기계화 사단과자주포, 渡河장비등을강화시킨것등으로 보아 이른바 短期작전을 기도하고있는것같다』고분석하면서 이에대한대비책을 완벽하게강구토록하라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북괴의 非正規戰기도에도 대처해 수시로 … 훈련등을 통해 문제점을 추려 부단히 이를 시정해나가야한다』고 강조하고 『정치와 사회가 안정돼야 경제안정이 이룩되고 경제가 안정돼야 국가의 안전을위한 자주국방력도 강화된다는 점을 명심해 앞으로도 정치및 사회안정과 경제안정을위해 우리軍도 계속노력해야할것』이라고 당부했다.

民韓 全黨대회 3월初 열기로

公職者 不條理추방
請託 暗行점검、刑事입건도
社會淨化委 새해 추진계획

独立紀念館건립 誠金
우리의 작은 精誠 큰뜻 이루게

<15일접수>
電話접수 722-4171

啓星製紙(株) 5백만원
商業銀行 海外근무직원 2백58만원
安養毛紡(株) 鄭元煥대표外 1백14만원
永仁運輸 임직원 80만원
漢都産業 姜秀勳회장 30만원
돈암동 尹相濠씨 23만원
韓亞醬油工業社 20만원
明鋼企業 柳致文씨 10만원
明鋼社 10만원
大都化學燃料工業 10만원

◇崔允信씨

◇姜秀勳씨

社會漫評

불만합니다 그려…

地平線

한국일보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저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주택, 토지, 기업체
부동산 매매
Paul Kim 김평
Sales Representative
Canada Permanent Trust Company
1560 Bayview Avenue Toronto.
Tel: (B)488-2444 (R)759-4560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ㅁ영어를 제2외국어로 하는 외국학생들을 위한 TOEFL과 미시간시험을 대비한 특별교실.
ㅁ기초반·중급반·상급반
ㅁ83년도 1월·3월·5월·7월·9월 그리고 11월에 수업시작.
ㅁ서울에 있는 학생들도 외국학생의 비자신청 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444-1136

S.T.S Motors
자랑스런 차
각종 VOLVO
(스웨덴)

■우리는 VOLVO 차를 취급하는 가장 뛰어난 딜러입니다.
■자신을 갖고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각종 차, 백건등
판매·LEASING·써비스·부속파트·타이어·페인트
S.T.S.MOTORS
전화 : 751-7664 로렌스·EAST OF WARDEN
2116 LAWRENCE AVE. E.

Chameleon Sunglass Boutique
<각종 고급 썬그라스 대매출>
각종 유명 메이커제품을 구비하고 한인교포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Paola Belle ·Zeiss ·Porsche ·Ted Lapidus ·Yves St.Laurent ·Christopher Magnus ·Play boy
·Christian Dior ·Ferrari ·Nina Ricci ·Roger Gallet ·Emmanuelle Khahn ·Pierre Cardin

검안 해 줍니다. Prescription Also Available 15% Discount Korean Only
광고쿠폰을 가져오시면 15% 할인합니다. Bring This Ad for 15% Discount Korean Only
St. Charles Promenade (Tel: 920-4062)
One Block South of Bloor St.
730 Yonge St.

대각사 大覺寺
자비의 전화 개설 안내
『따르릉~ 자비의 전화입니다』
중생의 괴로움을 함께 아파하여 그 해결책을 위해 상담에 응해 드리는 전화가 토론토에 자리했음을 알려 드리오며 교민 여러분의 많은 애용을 바랍니다.
가내의 만복을 비오며 소원성취 이루소서…
혜관스님합장
☎ : 463-8998
(매일아침 8시부터 10시사이)
11 DAWSON AVE. TOR.

허물어진 쿼터…헐값 投賣로
수렁에빠진 OPEC

19일「빈」서 石油相 對坐

사우디선「10%增量」카드
強穩國맞서 妥協 어려워

국제석유시장에 원유가 남아돈다. 그래서 이번 혹한은 그런대로 느긋이 격을수 있을듯하다. 선진공업국의 경기침체로 석유의 수요가 준데다 재정이 쪼들리는 산유국의 원유 投賣로 국제원유시장의 석유가 풍성하게 남아 돌고 있다.

지난 3월의 OPEC(석유수출국기구) 석유相회담에서 원유판매의 기준가를 배럴당 34달러로 정하고 그의 유지를 위해 생산쿼터를 하루 1천7백50만배럴로 減産 조정했으나 지금 어느것도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없다.

회원국 대부분이 각기배정받은 쿼터를 초과, 생산량을 늘렸고 판로를 찾는 불꽃튀는 경쟁으로 가격은 경쟁적으로 내려가고있다. OPEC는 창설23년래 최악의 사태인 와해일보전의 위기에 서있는 셈이다. 오는1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석유가격과 생산량을 둘러싼 회원국간의 분쟁수습을 위해 OPEC서 유相들이 9개월만에 다시 회의를 갖는다. 이들이 OPEC의 재단합을위해 어떤 합의에 도달하게 될지는 아직 뚜렷한 전망이 없다.

세계 최대산유국이며 域內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사우디는 만약 회원국간의 무질서가 계속된다면 그에 대한 보복으로 자국산유가를 대폭 내려버리겠다고 경고, 회담분위기 정돈에 나서고있다.

OPEC의 고통은 참으로 역설적이다. 그들이 유가를 급격히 올려 초래한 선진공업국의 경기침체가 도리어 원유수요의 감소를 가져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것이다. 원유가 남아도는데도 막대한 경제개발비와 재정수요의 충당이 급해 생산량을 줄일수가 없기때문에 OPEC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戰費조달에 급한 이란은 자국이 배정받은 생산쿼터가1일 1백20만배럴 인데도 3백만배럴 정도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고도 판로가없어 기준가 34달러보다 6달러나 낮은 배럴당 28달러의헐값으로 일본에 팔고 있다고 域內 다른 국가의 비난을 받고 있다.

70년대의 1, 2차 오일쇼크때 유가인상의 기수였던 域內 강경국 리비아도 자국의 1일 생산쿼터 75만배럴을 무시하고 1백70만배럴을 생산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하루 1백50만배럴을 초과, 2백20만배럴을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OPEC의 전체산유량 쿼터가 1일 1천7백50만배럴인데도 회원국들의 생산량증가로 현재 1천8백20만배럴 정도가 생산되고 있다.

OPEC를 궁지에 모는 또다른 요인은 非OPEC의 산유량이 지속적으로 늘고있다는 사실이다. 노르웨이, 미국, 영국, 멕시코등 非OPEC 산유국의 산유량이 이제는 OPEC 생산량을 훨씬넘는 하루 2천10만배럴에 이른다.

만약 OPEC및 非OPEC 산유국들의 석유생산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유가는 배럴당 25~28달러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우디는 그동안 쿼터를 초과, 산유량을 늘리고 가격을 인하판매하는 회원국들에 기만행위를 중단하라는 경고를 거듭해 왔었다. 사우디는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이같은 경고에도 불구, 온건책을 택해 OPEC의 파국을 막을것으로 보인다. 즉 기준가 34달러를 그대로 유지토록 하고 생산쿼터를 10%쯤늘려 OPEC 강경국들의 기만행위를 합법화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이것은 지난 3월 OPEC 석유상회담의 이전상태로 후퇴하는것을 의미하기도한다.

동시에 사우디는 회원국들의 投賣현상을 막기위한 조치로 세계경제가 다시회복, 석유소비가 늘때까지 재정압박을받는 회원국들에 낮은 이자의 재정지원을 공급할 준비가돼있는것으로 알려졌다.

OPEC의 이번 외상회담은 非OPEC국의 산유량 증산과 내부갈등이 얽혀 어쩌면 OPEC의 존립을 판가름하는 회담이될지도모른다. 사우디가이처럼 유화적자세로 전환한것도 OPEC가 세계석유시장의 조정자로서의 마지막 명맥을 유지토록하려는 안간힘으로 풀이해볼수있다.

서구와 중동의 석유전문가들은 기준유가를 인하하는 조치는 걷잡을수 없는 유가하락사태를 가져와 OPEC는 완전히 붕괴되고 말것이라고 진단하고있다. 그러나 당장 강경국들의 반발이 여전히 거센것으로보아 이번 회담의전망을 어둡게 해주고있으며 이란등 강경산유국은 자국에 할당된 생산쿼터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팽팽히맞서고 있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야말로 여전히 회원국간의 활발한 막후교섭에도 불구하고 강·온 산유국간의공방으로결론없이 끝나는것이 아닌가 보고있다. 【崔相鎬기자】

◇세계경제의 침체로 석유소비가 급격히 줄어들자 회원국들 사이에 투매현상이 일고있는가운데 오는 19일 빈에서는 다시 OPEC 석유상회담이 열린다. 이회담에서는 과연 돌파구가 마련될 것인지.

막판國會 꼬리문難題

再開發法案 매듭되자 租減法案 실랑이

都市재개발法案

○…정기국회 閉會를 코앞에 두고 갑작스레 伏兵처럼 나타났던 建設委의 도시再개발법개정안문제는 지난 수일간의 진통끝에 15일하오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정부가 낸 도시재개발법 개정안은 처음부터 首都圈整備법안과는 상충된다는 지적을 받으며 常委활동 막바지 建設委에서 民韓黨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받은후 13일 小委에서 修正案이 마련됐으나 林鍾基民韓黨총무가『이번국회會期안에 통과시킬수 없다』고 브레이크를 거는 바람에 교착상태에 빠진것.

15일하오 본회의가 끝난뒤 열린 建設委의 同法案심사小委는 이날상오 林民韓총무와 黨소속 건설위의원들 간의 의견조정을 토대로하여 小委의 수정안을 다시 수정하는 작업에 착수, 매듭을지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民韓黨의 申元湜간사등 小委위원들은 林총무와 합의하여 뒤늦게 마련한 도시재개발지역의 도로 下水道등 공공시설에 대한 재정부담을 지방자치단체 대신 사업시행자가 안도록하는등 4개항의 代案을 제시하면서 마지막 공세를 취했다.

그러나 民正黨측은『이미 지난13일밤 小委에서 결론을 내려 통과시킨것을 어떻게 번복할수 있느냐』며 難色과 함께『왜 일관성없게 이랬다 저랬다하느냐』며 반격을 가했다.

결국 이문제는 民正 民韓黨이 한발씩양보하여 小委수정안에 구속력도없는 소수의견으로 民韓黨의견이 첨부되는선에서 간신히 합의되는듯 했으나 民韓黨의 申간사가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통해 民韓黨의 입장을 정부에 촉구하는 便法을 이용하기로 매듭지었다.

이에앞서 民韓黨은 이날 상오10시15분부터 약 1시간 반동안 국회에서 총무단및 건설위원 연석회의를갖고 도시재개발법개정안의 代案을 마련했는데 이는 小委에서 합의해준 修正案통과사항을 사실상 既定사실화한 셈이됐다.

회의를 마친후 林총무는다소 격앙된 목소리로『결론적으로 이法개정안이 헌법에보장된 국민의 私有재산권을침해할수있는 毒素조항이 있다는데 전원 의견이 일치됐다』면서도『13일 건설위소속의원들이 진지한 정책질의를벌였고 小委의원들은 밤늦게까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이개정안의 정부原案에서 많은修正을가했다』고小委수정안에 긍정론을 펴고 小委위원들을 칭찬하는등 또다시 태도를突變하여 주위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林총무는『이번 小委위원들이 총무의 뜻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小委에 임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대해『상임위활동을 하다보면 情에 흘릴수도있고 다른 政黨의 동료의원들이 옷소매를 끄는데 무정하게 뿌리칠 수 없었던것이 이번 小委활동중 黨論과 약간의 괴리가 생기게되었던것같다』며 이들 小委위원들에 대한 赦免(?) 발언을 곁들이기도.

林총무는 民韓黨주장을 소수의견으로 첨부해 정치적타결을모색하겠다고 했으나 이처럼 林총무의 누그러진「밤사이의轉換」은 건설위소속의원들이『우리도 개인적인소신이 있고 재량권이 있는데 왜이미 난 결론에 대해 총무가 반대하느냐』고 불만을 터뜨린게 큰 영향을 미친게 아니냐는 것이 주위의 관측.

이같은 民韓黨의 태도突變에 대해 [illegible]위원장은『당초에 야당측입장이 계류시킨다는 것이었다면 무리해가면서까지 처리를 않으려고 했으나 야당측의 많은 의원들이 이개정안에 이해를하고상임위활동마무리에 有終의美를 거두어야한다는데 공감을 해주어이法案처리가건설위의 운영실적중의 하나가된것』이라며『李鍾贊총무가 이번 회기중에 무리하게 처리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법안이 좋은 결실을맺는데 煙幕작전이 된셈(?)』이라고 환히웃었다. 【盧繕煥기자】

◇국회建設委小委는 民韓黨측의 태도突變으로 都市再開發法개정안을 간신히 매듭지었다.

租減法 개정안

實名制法과 맞물려있는 租稅감면규제법이 종반국회 막바지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속에 엎치락 뒤치락 모진 시련을 겪고있다.

財務委에서 租減法개정안을 法司委로 회부한지 불과 한달 남짓. 法司委에서 이 법안을 놓고 한바탕「便法의 남용」논쟁을 일으키더니, 다시 財務委에서「法의 존엄성」논쟁, 이번에는 法司委에서「變則반려」논쟁으로 여·야가 맞붙고 있다.

시비의 발단은 實名制와맞물린 租減法중「記名예금과 無記名 예금에대해 차등세를 부과한다」는 특혜조항의 처리문제를놓고 비롯된다.

財務委는 지난달 20일께예산부수법안인 租減法을 법사위에 회부하면서 實名制와맞물려있는 特例조항을 2대2 삽입시켰다. 특례조항을 살린 속사정은 모르겠으나만일 재무위 안대로 성안이 된다면 모법인 실명제법이 마련되지않은 상태에서 부수조항이 앞서 개정되는꼴이된다.

법사위에서 야당측은 바로 이 대목을 지적,『이는 法理上의 모순으로 자칫 편법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이부분의 삭제를 주장했다.

물론 일부 여당의원들은『어차피 마련되어야 할조항』이라면 입법의 경제성을 내세우기도 했으나 논란끝에 특례조항은 전면삭제됐다.

開發法 與野、一步양보로 妥結
租減法 再改正문제 適法 논쟁

사단은 실명제법이 마련되면서 삭제된 租減法의 특례조항을 되살리는 문제를놓고 재무위에서는만만찮은 여·야간의논쟁이또다시일어났다.

여당측은 이제 母法이 마련된만큼 법체계상 부수조항을 마련하는것은 당연한 절차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동시에 여당측은 실명제법이 마련된 상황에서 실명제의 생명이 되는 差等稅 부과를 내용으로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실명제 자체가사문화된다고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측은 차등과세 시기가 내년7월1일부터 실시되는만큼 서둘러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고 맞섰다. 끝내 표대결로 租減法재개정을 재무위안으로 법사위에 회부했다.

그러나 법사위는 租減法재개정안을놓고 이번에는 내용물이아닌 절차상의문제를 놓고 여·야간에 適法논쟁으로 번졌다.

야당측은 재무위가 국회법50조(의원회의제안)에 의거, 租減法 재개정안을 발의한것은 국회법74조(법률안은 의원20인 이상발의)와상충하는위법한 절차인만큼 당연무효라는 주장이고 여당측은위원회발의는 국회법 50조를따르는것이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야당측은 국회법 74조와 50조가 상충되는것은 국회법자체에 문제가있는것이며 이럴경우 74조를 準則규정으로, 50조를例外규정으로 판단해 준칙규정을 따르는것이 정도라는주장을 펴고있다. 【李成俊기자】

메아리

톤 틴

톤틴, 또는 톤틴公債·톤틴年金이란 것이 있다. 17세기 이탈리아人 의사 로렌조·톤티가 창안한것이니, 정확하게는 톤티式公債·톤티式年金이다.

그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다.

먼저 年齡그룹별로 公債를 발행하고, 일정률의 이자를 지급한다. 그 이자는 公債를 산 가입자중 생존자에게 고루 배당한다. 이렇게 하면 해마다 가입자중의 사망자는 늘고, 생존자 한 사람이 받는 배당금도 늘어난다. 그러다 생존자가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되면, 公債의 원금은 국고로 귀속한다.

톤틴에 처음 눈독을 들인사람은 프랑스의 루이14世였다. 太陽王이라 불리며「朕이 곧 國家」라고 호언했던 루이14世지만 그의 나라는 호사와 전쟁탓으로 재정이 어려웠다. 그 뒷바라지를 위해 톤틴式의 公債가 적은 돈을 끌어 모아 목돈을 만들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더불어 톤티는 그의 財政官이 되었고, 톤틴公債는 프랑스革命무렵까지 1백년쯤 시행되었다.

財政史에서 보면 톤틴公債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런데도 이것이 중지된 까닭은 두가지로 설명된다. 하나는 죽은 사람의 몫을 나눠 갖는다는데 대한 기독교적 倫理감정의 반발이다. 또 하나는 그때만해도 戶籍이 불비했던 탓이다. 사람들의 나이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同一人證明·死亡여부를 가릴수가 없어 말썽이 잇달은것이다.

지금사정으로 하면, 톤틴을 좀 먹었던 이두가지사유는 모두 사라졌다고 할수있다. 倫理감정도 달라졌거니와, 우리나라처럼 戶籍이 잘되어있고, 주민등록제도가 철저한 사회에서는 톤틴公債를 운영한다고 해서, 말썽날 여지는 없을 것같다.

그래서 다음과같은 試算을 해본다.

가령 55세정년을 맞는사람 1만명이 1口座 1백만원짜리 톤틴公債에 가입했다고 치고, 그이율을 年10%로 잡는다. 가입자는 퇴직금에서 公債를 살수도있고, 10년 20년걸려 그만한 돈을 적립할수도 있다.

이렇게해서 모인돈은 1백억원, 한해 이자는 10억원이다.

이듬해 가입자 한사람의 배당금은 10만원+알파가된다. 알파의 크기는 사망자의 숫자에 달렸다. 10여년 지나, 가입자가 우리나라 평균수명쯤의 나이가 되면, 생존자는 반으로 줄고, 배당금은 배로 는다. 해마다의 인플레를 보상하고도 남을뿐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유리해진다.

같은 계산으로 20년 30년이 지나면, 배당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생존 가입자가 1백명 남은 시점의 배당금은 1천만원이다. 永久公債인 톤틴公債의 이율은 당연히 10%보다 높이 보아야 하므로, 公債가입자의 수가 많을 경우, 長壽者의 배당금액은 天文學的인 것이된다.

이렇게 되면, 長壽는 그야말로 美德이요, 즐거움이 된다. 자녀들이 보아도, 늙은이는 귀찮은 존재가 아닌, 보물단지다. 아무리 사나운 자식이라도, 어버이가 오래 사시도록 봉양하는것이 이익이다.

만일 나라에서 國營톤틴을 운영하여 모든 사람이 이에 가입한다면, 노인문제는 단숨에풀린다. 公債가 팔려 나라財政에도 도움이 된다. 국민들이 제가끔 長壽경쟁을 벌일테니, 나라의 건강시책이 따로 필요없다. 나라에서 말려도, 孝道사상은 예전보다 더뿌리깊어진다. 그에 따라 사회기풍은 또 얼마나 달라질것인가.

나라가 마다 한다면, 뜻맞는 사람들끼리 톤틴契를 모을 수가 있다. 보험회사가 주관하는 톤틴보험도 가능하다. 사람이 죽어서 돈을 남기는 생명보험보다는, 살아서 돈을 남기는 生存보험이 그럴듯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런 생각은 정부·여당이 福祉年金의 조속실시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은 뒤로 줄곧 있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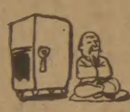
일종의 老齡年金인 福祉年金은 벌써 법을 만들어 놓고도, 그 실시를 시행령에 맡겨 10년이나 미뤄 온다. 금년 국회에서 實名制의 실시를 시행령에 맡겨「失名」시킨 것과 同巧同曲이다.

福祉年金의 시행이 어려운 까닭은 여러가지다. 법에 정한대로 하면 年金을 제대로 받기까지는 20년이 걸린다. 제도의 정착이 20년걸리는 것이나 같다. 그나마 20년뒤에도 지금 직장을 가진 사람을 뺀 대다수의 국민과, 50세이상인 壯年層은 전혀 혜택이 없다. 年金에대한 인플레效果도 걱정이다.

이처럼 지금 福祉年金을 시행함에는 많은 난점이 있다. 老人문제 대책으로도 매우 더디고 미흡하다.

그렇다면, 福祉年金의 조속한 실시뿐 아니라 그것을 앞지르게 하는 무슨 '아이디어'라도 있어야 할것같다.

일반에게 낯선 톤틴은, 그를 위한 發想轉換의 한 꼬투리일 뿐이다.



金昌悅 <編輯委員>

홍콩 파·이스턴·이코노믹·리뷰誌 北京지국장 보나비아氏

인터뷰

『이젠 서울이 무척 친밀감있게 느껴집니다. 지난 76년, 77년에 이어 3번째 방문이니까요.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는 서울거리는 혼잡하긴하지만전보다활씬 생동력이 있어 보입니다』

◇보나비아北京지국장

"中共에 큰變化、實用주의 路線인기
劇場·음악회등 關心 옷차림도 神經"

홍콩의 유력경제전문지인 파·이스턴·이코노믹·리뷰誌의 北京지국장인 데이비드·보나비아씨(42)는 전날 한국인친구들과 어울려 너무 과음한 탓인지 피곤하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漢陽大 中蘇연구소가 주최한 심포지엄에 참석차 지난13일 서울에 온 보나비아북경특파원 겸 지국장은 3년가까이 중공에 머무르는동안한국사람들을만난적은 없었고 언젠가 북경주재 북한대사관에 비자신청을 하러갔다가 문전퇴박을 맞았다고 털어놨다.

보나비아씨는 북경의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지금 중공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올해 중공은 國全大會와 5기 全人代를 통해 毛澤東의 개인숭배잔재를 일소하고 실용주의노선을 확립했지요. 중공사람들은 종래의 이념주의에서 탈피해 소득이 올라가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모두들 최근의변화를 환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제 대도시의 시민들은 보다 많은 책 잡지 신문을 접하게됐고 극장,음악회등에관심을보이고있읍니다.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게되고 젊은이들이 블루·진을 입은 모습도 늘고 있지요』라고 보나비아씨는 북경의 실정을 전했다.

보나비아씨는 케임브리지대학에서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등 4개국어를 공부했고 이어 언어학 석사과정을 마친것이 기자생활에 크게 유리했다고 했다.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자랐기때문에 영어에 능통한것을 보태면 무려 5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셈이다. 이런 능력은 주위의 인정을받기에 충분하다.

그래서인지 그가말하는 기자생활도 화려했다. 지난61년 영국로이터통신기자로 처음 언론에 발을들여놓은후 중앙아프리카에서 활약하다가 이어 월남전이 한창이던 67~68년 로이터통신겸 런던·타임즈紙특파원으로 사이공에 파견됐다는 것. 또 69~72년까지 3년간은 모스크바에서 런던·타임즈특파원으로 일하다가 추방됐다고 말하는 보나비아씨는 추방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관해서는 말하길 꺼려했다.

그는 그후 72년에 당시 조그만 잡지였던 이코노믹·리뷰誌에 들어가 현재 동남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시사주간지로 성장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가족상황은 가히 코스모폴리턴이랄수 있을 정도로 가지각색이다. 할아버지는 이탈리아인, 할머니는 독일인이고 스코틀랜드에서 터전을잡은 아버지는 경제학자, 현재의 부인은 오스트리아인이란다.

왜부인과동반하지않았느냐는 물음에 그는『내 아내는 집에있는 고양이를더 사랑하나봐요』라며 활짝 웃었다. 【崔海雲기자】

◇"「매커트니는 나의 아버지」" 비틀즈의 일원이었던 세계적인 가수 폴·매커트니가 자신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며 西베를린법원에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하고있는 西獨의 베티나·후매르스양(20·右)이 매커트니의 사진을 들어보이고있다. 옆은 매커트니와 지난62년 함부르크에서 관계를맺어 후매르스양을 낳았다고 주장하고있는 어머니 에리카여사(39). 【베를린14日AP합동=聯】

海外토픽

딸낳으면 殺害일쑤
★中共농부들1子女강제로

중공이 인구억제책으로「1가구 1자녀」정책을 강제시행하면서 전체인구의 80%가 살고있는 농촌지역에서 농부들이 딸을 낳으면 죽여없애버리는 풍조가 만연하고있어 골치. 아직도 아들을 중시하는 봉건적사상이 뿌리깊은중공에서는 딸을 낳을 경우 당국의 강제정책으로 더이상아들을 볼수없기 때문에 갓난여자아기를 없애버리는 농부들이 많다고 하는데 수상趙紫陽도 이번 5기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 5차회의에서 이러한 풍조를 개탄, 갓난여아를 없애버리는 농부들에게 중벌을 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는것. 【北京=聯】

다이애너妃는 魔鬼
★英칼럼니스트TV서맹비난

다이애너 영국 찰즈황태자비(21)는『매우 고집스럽고 버르장머리없는 마귀내지는 작은 괴물』이라고 영국데일리·메일紙의 가십칼럼니스트인 니겔·뎀스터씨가 혹평.

뎀스터씨는 최근 런던의 한 상업TV방송의 주말심야프로에 특별초대손님으로 출연, 결혼전에는 그토록 수줍었던 다이애너황태자비가 이제는 찰즈황태자의 친구들을 쫓아버리는가하면 매사를 제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마귀내지는 작은 괴물과도 같은」못된 여성으로 돌변해버렸다고 맹렬히 비난.

한편 버킹엄宮의 대변인은 뎀스터씨의 이같은 혹평에언급,『일고의 가치도없는 쓰레기발언에 불과한것』이라고 일축. 【런던=AP】

세계최초 海上목장
★싱가포르,大型선박 띄워

싱가포르정부는 1백30만~1백80만달러를 들여 세계최초의 海上牧場을 만들 계획인데 이海上牧場이란 대형선박을 싱가포르 바다위에 띄우고 이 선박에 牧草를 키우고 6백여두의 소를 길러 목장구실을 하게한다는 것이다. 【싱가포르=聯】

HoneyHome BakeShop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각종 파티용
샌드위치 TRAY
주문 받습니다.
☎ : 961—9780 MRS. 장
☎ : 536—1908(R)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11 : 00AM~10 : 30PM
금요일11 : 00AM~11 : 00PM
토요일5 : 00PM~11 : 00PM
일요일5 : 00PM~10 : 00PM

OPEN 7 DAYS
12 TEMPERANCE ST
☎ 368—2470

行材藥華中大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中國良藥 大量供應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 : (416) 977—8858-9
10AM → 8 : 30PM

맛 사 지

(near airport)
MISSISSAUGA

北예멘에 최악의 强震
1千여명 沒死
15개마을 완전 廢墟化
震度6…하루 4번强打

【사나AP=聯】13일 북예멘을 강타한 여러차례의 지진으로 1천82명이 죽고 1천1백40명이 크게다쳤으며 15개마을이 폐허가 되다시피하고 1백27개마을이 큰피해를 입었다고 압델·카림알·이리아니 북예멘수상이 14일밝혔다.

13일 상오부터 다마르지역에 최장40초간격으로 연속 4차례 강타한 지진은 리히터지진계로 4~6도를 기록했으며 여진이 24시간이나 계속됐다고 당국은 밝혔다.

사상최악의 지진으로 산간 마을은 외부와 완전고립됐으며 석조건물들이 무너져내려 많은 구조물피해가 심해 인명피해도 계속 늘어날것으로 보인다.

北예멘라디오방송은 부상자들을 위한 헌혈을 계속 호소하고있다.

아라비아半島 最南端의小國

北예멘(예멘아랍공화국)은 아라비아반도 西南端紅海 출구의 전략적요지에 위치한 면적 19만5천㎢의 新西方아랍국이다. 북쪽과 동쪽은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은 南예멘, 서쪽은 홍해에 면해있어 경제·외교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향을 크게받고있다. 인구약6백만. 수도는 사나(27만). 기온의 차가 심하며 저지대는 연평균기온 50도이상인곳도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은 4백20달러로 세계 最貧國의 하나다. 알리·압둘라·살레하대통령은 지난78년 前대통령이 예멘대통령특사에 의해 암살된후 취임, 親사우디·親西方의 보수·온건노선을 지키고 있다. 총병력 3만2천. 문맹률87%, 岩鹽이 주요자원이다.

◇훈련받는 레바논兵士들 한美해병대원(右)이 14일 레바논 병사들에게 육박전훈련을 시키고있다。레바논 다국적 平和유지군에 배속된 美제24해병대는 3주동안 레바논병사들에게 헬리콥터를 이용한 수직공격등을 포함한 훈련을 실시할예정이다。【베이루트14일UPI電送=聯】

核미사일 地下격납고 蘇、東獨에설치

【몰렌=聯】소련은 그들의 영토밖에서는 처음으로 동독에 견고한 핵미사일지하격납고를 설치하고 화학무기들을 배치했다고 서독의 시사주간 슈테른誌가 14일 보도했다.

슈테른誌는 美국방성의 비밀정보보고를 인용, 소련은 81년 중반부터 중거리폭격기 SU24폐서기를 헝가리·폴란드·동독등에 재배치했다고 말했다.

이 주간지는 동독내에있는 4개의 소련공군지원기지내에 설치됐으며 또다른 25개소가 핵미사일 프로그와 스커드의 배치장소로 계획되고 있다고 폭로하고 소련은 프로그미사일을 사정이 더 길고 명중률이 더높은 SS21미사일로 바꾸고있다고 밝혔다.

지브롤터接境 개방 스페인、하루1回씩

【지브롤터=聯】스페인남단의 영국령 지브롤터와 스페인을 13년동안 가로막아온 鐵門들이 15일 자정(현지시간)을 기해 다시 열린다.

지브롤터-스페인 접경은 故프란시스코·프랑코 스페인 총통의 결정에 따라 지난 1969년이래 완전 폐쇄상태에 있었다. 프랑코총통은 생전 지브롤터에 대한 스페인의 영유권을 주장했었다.

美、MX배치 새方法 모색
레이건、代案 3월까지 의회제출

【워싱턴AP UPI=聯】레이건 美대통령은 14일 MX미사일 생산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는 대신 새로운 배치방법을 의회에 제출, 의회가 이를 승인할때까지 생산비지출을 연기한다는 타협안에 동의했다.

레이건대통령은 이날 共和·民主양당상원중진의원들과 회합을 가진후 백악관 기자실에 나와 이 타협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MX미사일의 생산비를 현재 의회에 계류중인 83회계연도 방위지출법안에 전액존속시키되 레이건대통령이 「밀집배치」방식이 아닌 다른대안을 제출하고 상하양원이 이를토의하여 새로운 배치계획을 승인할때까지 생산비지출은 연기하도록 돼있다.

레이건대통령은 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서유럽에대한 5백72기의 퍼싱Ⅱ및 순항미사일배치계획을 포기할경우 서유럽을 겨냥하고있는 SS20미사일들을 반감하겠다는 크렘린의 최근제의가 불충분하기는 하나 동의가 서군축실현을 향한 하나의 긍정적인 조짐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日사회黨 書記長 히라바야시 任命

【東京AP=聯】일본의 제1야당인 社會黨은 14일 히라바야시·쓰요시(平林剛·60)를 신임黨서기장으로 임명했다고 社會黨대변인이 발표했다.

黨대변인은 15일의 전당대회를 하루앞두고 당내 각파벌대표회담에서 히라바야시를 신임서기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클라크氏 상태惡化 血壓떨어져 再手術

【솔트레이크시티AP UPI=聯】지난2일 사상처음으로 영구인공심장이식수술을 받은 치과의사출신의 바니·클라크씨(61)는 수술후 12일째인 14일 인공심장의 밸브파열로 혈압이 낮아지는 부작용을 일으켜 4시간동안에 걸친 재수술을 받았다.

의사들은 고장난 폴리우레탄인공심장 재비크 7의 왼쪽절반을 원위치에 고정시켰다.

유타대학보건학담당부총장 체이스·피터슨박사는 클라크씨가 여러차례 수술을 받아 『병색이 완연하다』고 말했다.

피터슨박사는 클라크씨의 용태가 『수술이전에도 물론 그랬지만 수술후에는 더욱 중태』라고 밝혔다.

이디오피아軍 作戰중 暴動
4천명 수단에 亡命

【제다IINA=聯】4천명의 이디오피아軍人들이 최근 에리트리아에서 작전중인 그들의 부대를 이탈, 이웃나라 수단에 정치적망명을 요청했다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알·마디나紙가 하르툼發로 13일 보도했다.

알·마디나紙는 2개여단 소속의 이군인들이 에리트리아해방군과 전투를 벌이고있는 이디오피아 정부군내에서 폭동을 일으킨후 국경을 넘어 수단으로 망명했다고 전하고 이들 폭동군인들과 이디오피아국가원수 멩기스투·하일레·마리암장군에 충성하는 정부군간의 충돌에서 약6백명의 군인들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신문은 3개여단 내에서 발생한 이폭동이 수도 아디스아바바에까지 확대됐을 가능성이있다면서 아디스아바바에서는 정치및군사적불안상태가 목격되고있다고 말했다.

레바논 一部지역 「이」서 撤軍용의

【텔아비브UPI=聯】이스라엘은 레바논과의 안보체제에관한 최종합의가 이루어지기전에 이스라엘軍을 레바논의일부지역으로부터 철수시킬수도 있다고 이스라엘외무성의 한 고위관리가 14일 말했다.

예후다·벤·메이르외무차관은 시리아軍이 철수하고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게릴라들이 먼저 레바논을 떠난다면 이스라엘軍은 이스라엘—레바논접경지역의북쪽 40㎞지점으로 물러설수있다고 말했다.

강심제=심장돋굼藥、커튼=창문장
北傀、新造語 量産…주민 사용 강요

【서울=聯】北傀 金日成의 소위 「文化語」정책으로 南北간 言語의 異質化를 심화시키고있는 北傀는 요즈음 그들의 語文기관을 동원, 갖가지 新造語를 量産, 北韓 주민들에게 이의 사용을 촉구하고 있는데 北傀선전기관이 만들어낸 新造語 가운데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강심제」=심장돋굼약 ▲「여객대기실」=손님기다림칸 ▲「무궤도전차」=전기버스 ▲「스펀지」=부품고무 ▲「주소」=사는곳 ▲「중년기」=마흔안팎때 ▲「캐러멜」=기름사탕 ▲「루피스」=나뭇스 ▲「설기과자」=겨울과자 ▲「인삼지」=… ▲「계수기」=셈세개 ▲「반창고」=붙임띠 ▲「빙수」=단얼음 ▲「지방성크림」=기름크림 ▲「류브치약」=짜는 이닦기약 ▲「콤파스」=원그리개 ▲「플래카드」=구호 ▲「커튼」=창문장 ▲「가로수」=거리나무 ▲「해산물」=바다산물·바다것 ▲「예방접종」=미리막이약넣기 등

內外動靜

▲李範錫 외무부장관등 14개部處 장관들은 15일 하오 6개조로 나뉘어 육·해·공군 일선부대를 각각 방문, 컬러TV와 VTR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人事異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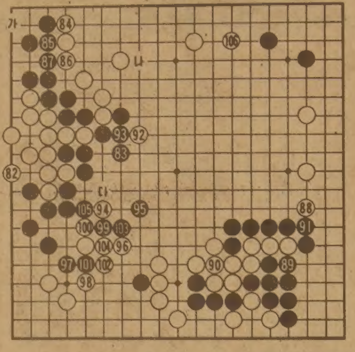
文教部 ▲서울시교위 관리국장 李千洙 ▲본부근무 金得洙 ▲예술원 사무국장 孔榮睦 ▲서울시교위 江南교육구청장 朴炳輝 ▲서울大시설과리국장 李海暾 ▲본부근무 陳庸苗 (15日字)

交通部 ▲수송조정국장 康台燮 ▲관광국장 "成書"金龍 ▲안전관리관 金光得 ▲서울지방항공관리국장 李東熙 ▲仁川지방해운항만청장 金乘憲 ▲順天지방철도청장 正淵 ▲국제협력관 金鍾吉 ▲국방대학원 입교 李相根 ▲해운항만청 기획관리관 韓支淵 ▲운영국장 崔昇烈 (20日字)

名人戰 第14기 挑戰者決定리그

第5局 第7譜 82~106 (각5시간·덤5집반)

白(7段) 徐奉洙〈청판〉
黑(7段) 盧永夏〈1敗〉



좌변을 白82로 살고 黑도 83에 호구이용하는데까지 이쪽 전투는 일단락이다. 그렇지만 黑은 실리를 얻은만큼 손해를 본 결과이다. 앞서 우하변 절충한 결과라니 盧7단의 말을 빌면 白이 「한판」도 徐7단은 거꾸 두차례나 밀지는 장사를 한 셈이다. 더구나 白84에 대한 黑85도 「가」자리가 正手라고 한다. 왜냐하면 白86이 두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나」쪽에서 수단을 부릴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 그런데 86을 선수로 두게해서 맛도 멋도 없이 된 것이 애석하단 얘기다.

黑 상당한 戰果

白88을 선수한 徐7단은 노타임으로 白92마저 선수했다. 이 수는 94쪽부터 선착해야 옳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黑95의 강수를 유발한 것은 이른바 호사다마였다. 보통이라면 黑95는 「다」의 곳이 正手다. 그러나 正手대로 두면 白105를 선수로 당한다음 白95로되어 黑은 도저히 이길가망이 없다. 이판사판식은 아니더라도 黑95는 나름대로 대담한 승부수였다는 눈치. 그러나 계제에 黑97을 선수하고보니 黑99로 건너붙이는 맥이 생겼다. 그리고 아차아차하는 사이에 黑105까지. 黑은 白94한점을 보기좋게 잡아버리고 이 근처싸움에서 가를 올렸다. 다만 白106으로써 白이 여전히 우세. 【一九】

產銀, 慶熙大에 쩔쩔매다 辛勝

대통령盃농구 37초남기고 崔明龍 逆轉결승골 72-71

◇이정도면 스포츠의 曲藝化 있다. 產業銀行과 慶熙大의 열전. 慶熙大林虎勇㉝과 產銀 楊商喆(9번)이 볼쟁탈전을 벌이고

여자8強에 託銀·換銀·國民銀·코오롱·태평양 先着

託銀, 신생保證基金에 진땀 60-58

太平洋호화멤버, 商銀을 가볍게 79-66

서울信託銀行 外換銀行(A조) 國民銀行 코오롱(B조) 太平洋化學(D조)이 8강이 겨루는 여자부 결승토너먼트에 먼저 올랐다.

15일 장충체육관에서 진행된 제11회 대통령배쟁탈전국남녀농구대회 3일째 여자부 A조에서 서울信託銀行은 신생 信用保證基金과 격전끝에 60-58로 신승, 금년시즌 처음으로 결승토너먼트에 진출했다.

A조에는 外換銀行 서울信託 保證基金등 3개팀이 속해있는데 保證基金은 2패로 탈락했고, 1승을 올린 外換銀行과 서울信託이 결선에 나갔다.

B조에서 國民銀行은 체력을 바탕으로한 속공으로 朝興銀行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64-47로 완승, 1승을 기록한 코오롱과함께 결선에 나갔다.

5連覇를 노리는 D조의 太平洋化學은 朴贊淑을 비롯한 호화멤버를 고루기용하며 商業銀行을 79-66으로 쉽게 제압하고 2승을 기록, B조 수위로 결선에 올랐다.

한편 남자부 D조의 產業銀行은 慶熙大와맞서 고전끝에 37초를 남기고 崔明龍의 중거리슛성공으로 72-71로 역전, 1승을 올렸으며 A조의 企業銀行과 漢陽大는 접전끝에 企業銀이 84-70으로 이겼다.

產銀과 慶熙大의 대전은 남자은행팀들의 퇴조를 그대로 드러낸 일전.

금년 스카웃에서 한명도 보강하지못한 產銀이 대학농구중위그룹팀에게 혼난것은 당연한 귀결.

이날 대전서 產銀은 조직적인 팀플레이와 파이팅없이 개인기로 일관했다.

운동의 우세와 楊錫尤의 분전, 孫(?)·朴明洙의 호조로 경기종료 1분전까지 경기의 주도권을 잡았으나 마지막 1분간의 공세를 막지못해 역전패했다.

慶熙大가 전반을 37-34로 앞서자 產銀은 商鍾厚와 崔明龍의 슛을 맹추격했다.

게임의 주도권을 쥐고있던 慶熙大는 產銀 商鍾厚의 골밑활약과 崔明龍의 중거리공격을 막지못해 1분여를 남기고 71-70으로 추격당했고 공격을 서두르며 슛을 난발, 결정적인 고비에서 주춤하고말았다.

產銀은 27점을 올린 崔明龍의 마지막 결정타에 힘입어 72-71로 신승했다.

◇제3일전적

▲남자D조	산업은행 72 (1승)	39-33 / 34-37	71 경희대학 (1패)	
▲동A조	기업은행 84 (1승)	39-45 / 27-43	70 한양대학 (1승1패)	
▲여자A조	서울신탁 60 (1승)	31-29 / 28-30	58 보증기금 (2패)	
▲동B조	국민은행 64 (1승)	30-34 / 26-21	47 조흥은행 (2패)	
▲동D조	태평양화학 79 (2승)	34-45 / 37-29	66 상업은행 (1패)	

한국卓球 기염

世界대학생選手權 男女 나란히 2勝

제4회 세계대학생 탁구선수권대회 (브라질·포르테자)에 출전중인 한국남녀팀은 15일 (한국시간)벌어진 남녀단체전에서 나란히 2승을 기록했다고 15일 선수단이 협회에 알려왔다.

6개국이 출전한 여자팀은 풀리그로 패권을 가리는데 한국은 이날 캐나다와 이탈리아를 각각 3-0으로 이겨 2승으로 단독선두에 나섰다.

또 예선A조의 한국남자팀은 이집트를 5-1로 누른데 이어 스위스도 5-0으로 완파, 2승을 올려 4강의 결승토너먼트에 올랐다.

한국은 金昌濟감독, 黃相完코치인솔아래 金浣·金琦澤·梁五澤·盧潤寬(이상 남자) 金貞美·白良美·池映容·朴銀珠(이상여자)등이 출전했다.

마지막 3~4回戰은 2분30초案을 검토

WBA회장 "15회전은 그대로"

【카라카스(베네수엘라)=15일 UPI=聯合】프로복싱 WBA(세계권투협회) 길베르토·멘도사회장(베네수엘라)은 15일『WBA는 WBC처럼 내년부터 세계타이틀매치의 라운드수를 줄일계획은 없지만 마지막3~4라운드를 2분30초로 줄이는방안을 검토하고있다』고 말했다.

멘도사회장은 이와함께 내년1월 열리는 WBA집행위원회에서 복서들을 보호하기위한 7인의료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일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복서안전대책이 현재 의료위원에서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01

亞洲頂上 지키는게 難關

男子농구

潛在力은…

「金메달코치」가 診斷하는 金메달리스트

『남자농구가 뉴델리 아시안게임서 中共을 꺾었다고 자만해서는 안됩니다. 中共이 갖고있는 잠재력은 한국을 능가하고 있읍니다』

◇方烈 감독

12년만에 남자농구를 아시아정상으로 끌어올린 方烈감독은 우승의 기쁨보다 남자농구의 현 위치를 어떻게 고수해 나가느냐가 더큰 고민이라고 실토한다.

남자농구는 내년 11월 홍콩 아시아남자농구선수권대회에서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아시아지역출전권을 가리는 中共과 또다시 숙명의 일전을 벌여야만 한다.

올림픽 출전권은 아시아지역서 1개국.

출전권을 따내기 위한 한국 中共 日本의 3파전은 團度 아시안게임보다 치열할것으로 方烈감독은 예상하고 있다.

中共은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겨냥, 작년말 대표팀을 대폭 교체했다. 日本도 아시아에서 최장신이고 평도 장신 누마다(沼田)를 규연령도 22.5세로 가장 빼고 기다하라(北原)오 젊다. 日本은 평균신장이 1m95로 中共과 대등한 까야마(岡山)체제를 구축, 홍콩ABC까지 유지할 것이다.

『대표팀의 대폭 교체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 팀을 대폭 교체했다』日本 수를 육성하는길밖에없다.

LA올림픽까지 현체제를 끌고가리라는것이 方烈감독의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은 홍콩ABC와 LA올림픽까지 현 주축 선수들을 그대로 끌고가야하는 어려운 실정이다.

中共은 장신 穆鐵柱를 비롯, 평균신장이 1m97로 한국 1m87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한국이 中共을 꺾을수있었던 것은 중거리슛 파워와 작전의 승리였다. 中共과의 재대결서 작전의 승리를 기대하는것은 모험이 없다.

『그러나 장차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신의 보강은 절실합니다. 李東佑 빨리 완쾌되어 복귀하고 청소년선수 가운데 유망한 장신을 기용, 경험을쌓도록 해야합니다』

中共이 가장 유력한 우승후보라고 方烈감독은 승리가 홍콩ABC서 한국이 中共을 이긴데는 李忠熙의 탈락있는 게임운영이 결정적 요인이었다.

方烈감독도『李忠熙의 주는 중요성은 대표팀에는 위험 변수가 많다. 작전의 묘도 있었지만 李忠熙처럼 외곽슛을 살려주는 유형 면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후가 아니면 또 부상을 입는다면 재기 불능입니다. 李忠熙의 공백을 메꿀 자원이 구할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우승이 국내남자농구 중흥에 기폭제가 된 것은 사실이다. 또한 예상치 않았던 우승이어서 한층 값지다. 그러나 우승을 지켜가는것은 더 어렵다.

『남자농구의 사활은 잔여 1개월후로 박두한 中共과의 대결에 대비해야 할것입니다』【閔炳宰기자】

◇기쁨너머에는 또 山… 남자농구는 홍콩ABC서 로스앤젤레스올림픽 출전권을놓고 中共 日本과 또한차례 격전을 치러야한다. 뉴델리아시안게임서 中共을 물리치고 우승한후 기뻐하는 모습.

"LA예선 ABC대비 長身化만이…"

LA겨냥補强 中共 평균1m97·日 1m95

한국 1m87…作戰·중거리만으론 어려워

신의 발굴과 육성에 달려있읍니다. 오까야마(2m26)가 한국에 처음 등장했을때 과연 키값을 해낼까하고 회의를 품은 예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日本농구협회는 오까야마를 키우기위해 美國에 농구유학을보내는등 끈질긴 노력과 투자를 한 결과, 오까야마는 한국을 가장위협하는 장대가 되었읍니다. 우리도 이와같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코앞에 다친 홍콩ABC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장신선수의 일부 보강은 절실합니다』

홍콩ABC는 LA올림픽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남자농구가 아시아정상을 오래 지킬수있느냐는 시험무대이다. 그만큼 方烈감독의 짐은 무거워진것이다.

『나 자신 홍콩ABC 감독으로 유임될는지 미지수입니다. 누가 코칭스태프를 맡든지 中共의 장신을 꺾을 비책이 중요합니다. 한국팀의 잠신화가 결코일조일석에는 이루어질수 없읍니다. 따라서 현재 대표선수들이 갖고있는 기량과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중거리 슛을 강화해야합니다. 그리고 中共을 이려놓는 속진법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92>

朴婉緖 作 / 金光培 畵

부드러운겨울 ⑱

그 사람이 누구냐구요? 그 사람은 우리가 버린 동생의 오빠예요. 우리가 버린 오목이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모른척 했기때문에 죽어가는거예요. 우리탓이에요…』

그러나 그 소리는 끈적한 가래처럼 목구멍을 가로막고 헛되이 그르렁대는 목소리가 되지못했다. 내가 버린 오목이를 우리가 버린 오목이로 고쳐서 복수 생각만으로도 죄책감이 한결 가벼워지는것같았지만 끝내 목소리가 되진 못했다.

이렇게해서 수철이를 공범으로 끌어넣을수있는 또한번의 기회도 놓치고말았다.

수철이를 보자 마담은 손수 칸막이가 된 룸살롱으로 안내했고, 수철은 집치 펌은 얼굴로

『야, 누가 그런 객적은소리를』

로 코피를 시키곤은 새삼스럽게 수지를 훑어봤다.

『너 무슨 근심 있냐? 이제 보니 안색이 안좋다』

『그래요? 며칠 몸살을 좀 앓았더니』

『아냐, 마음 근심같은데, 혹시 남서방하고 트러블있는거 아니냐?』

『남서방 출장 나간지가 벌써 얼만데요?』

『아, 참 그렇지. 내 정신 좀봐. 그럼, 알만하다. 독수공방이 오래 가면 다 그런거 아니니?』

『제가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 오빠가 아시면…』

『말해보렴. 하나밖에 없는 누이동생의 소원이라면 못들어줄 것도 없지 뭐』

『싫은 오빠, 제가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리 돌겠니? 이 바쁜 시간에 안되겠다, 내일이라도 남서방 불러내서 술 한잔 하면서 여자 다루는 법 강의라도 한판 벌려야겠다』

『남서방 출장 갔지가 달 넘어요. 앞으로 두달이 더 걸릴테고요』

『그 정신 가지고 보수 이 사업한다는거 하는 참 신기하네요』

『그게 바로 돈 버는 비결이야. 모든 기억력, 추진력을 오로지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다보면 그렇게 된단다』

『그러니까 오빤 부자야. 그렇게 자꾸 돈만 벌어서 뭐하려고 그래요? 그래봤자예요. 왜 아직도 대재벌이 되어 수십만 종업원을 거느리지 못할까?』

『애가 슬그머니 남의 폰에 찌르네. 사업이 그 방면으로 크려면 정치적으로 밀어줄 백이 있어야하는데 나는 그게 약하거든. 실은 남서방하고 결혼할때

만해도 남서네한테 은근히 그런걸 기대하지 않았던건 아니었는데, 그집에 정치적 별볼일 없는게 뒤구덩에 별볼날 보다 짧았으니 내가 크게 잘못 짚은 셈이지. 그렇게 되니 자연히 돈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수밖에 더 있나? 이 세상이 또 그렇게 돌아가고… 그 수레(車)에 못탄 놈만 바보야. 사람과 수레와의 관계란 타지않으면 깔리는 것 밖에 더 있냐?』

그때 마담이 별실의 휘장을 가만히 밀고 나타났다.

『한사장 전화예요』

마담은 한손으로 검정바탕에 진분홍 장미꽃송이가 만개한 비단 치마자락을 우아하게 거머쥐고 한손엔 깜찍하게 예쁜 전화기를 들고있었다. 마담은 전화기를 별실에 꽂고 수화기를 수철의 버릇대로 어깨에서 턱으로 걸리게 놓아주었다. 마담은 그렇게 어루만졌고 보일듯말듯 하면서 농염한 미소가 입가에 스쳤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93>

朴婉緖 作 / 金光培 畵

부드러운 겨울 ⑲

수철은 계면쩍은 것도 같고, 으스대는것도 같이 수지를 한참 찌긋해보이고는 통화를 시작했다.

이번엔 영어였고, 수지는 그렇게 능숙한 영어는 아니었지만 막히거나 망설임이 없었고, 통화가 진행됨에 따라 수철의 눈은 기름을 부은것처럼 안광을 타오르기 시작했고, 몸 전체가 출전을 앞둔 용사처럼 눈부시게 긴장했다.

수지는 다 식은 코피로 바싹 마른 입안을 축이며 생각했다.

그에게 천구백오십일년의 겨울을, 그 겨울의 추위와 이상한 허기를 기억하게 하는건 불가능하다. 도저히. 한개의 고구마, 한 공기의 밥을 더 먹기위해 동생을 내다 버려야겠다는 악마의 모의를 꾸미게했던 그 이상한 허기에 대해 그는 처음부터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는 모르는 처하기 짝이니까.

이런 체념이 되레 수지를 편안하게 했다.

『좋은 건수가 하나 터질 것 같다. 그럼 나 먼저 간다. 또 보자』

통화가 끝나자마자 서둘기부터 하는 수철은 마치 발동이 걸린 기계처럼 못 말리게 생겨있고 저돌적으로 보였다. 이런 수철이를 수지는 혐오스럽게 여기면서도 한편 찬탄을 금치 못했다.

『한사장 매씨 되신다구요? 우아하기도 하셔라. 종종 들르세요』

뒤늦게 혼자 나가는 수지에게 마담이 은근한 눈웃음을 보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수지는 어쩐지 마음이 매우 가벼웠다. 유기사의 위치가 확정된거나 마찬가지여서 그러리라 생각했다. 그전보다 믿을수 있는 오빠를 가졌다는게 자랑스럽기도 했다. 유기사가 실제로 중동으로 떠날때까지만 봐주고는 그후에는 절대로 상종을 말아야지, 절대로….

수지는 혼자서 이렇게 다짐을 하다말고 어깨와 마음이 함께 홀가분해진 정작 까닭을 문득 깨닫고 아연했다.

수지는 마침내 공범을 구한 거였다. 오목이를 모른척한 죄와, 그 죄가 한평생의 삶을 얼마나 괴롭고 어둡게 했나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지기 위한 공범자가 아니라 또 한번 모른척하기위한 공범자를 구한거였다.

수지가 애타게 공범자를 구한 것은 혼자서 책임지기가 두렵고 싫어서였고, 혼자서 책임지기 싫다는 것은 능히 또한번 오목이를 모르는 척할수 있는 간지(奸智)의 시작이었다.

오빠도 모르는척 하는데 왜 내가 나서. 오빠가 이미 잊어버린 것처럼 나도 잊어버려야 돼. 진작 그랬어야 하는건데.

수철이야말로 책임을 나누어지기 보다는 책임을 함께 회피하기 위한 훌륭한 공로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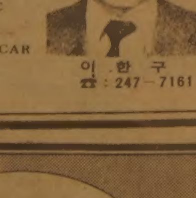
그러나 급히 면접하러오라는 통보가 왔을때 수지는 보다 일러가게로 전화만 걸면 되는걸 몸소 허둥지둥 오목이네를 찾아 나섰다. 오목이가 좋아하는걸 눈으로 보고싶었고, 사는 형편이 보고싶었고, 아직 보지못한 일남이를 보고싶었고, 일남이의 네 동생들이 보고싶었다.

보고 뭘 어쩌겠다는 생각같은건 처음부터 없었다. 그는 갈망에 쫓기면서도 자기가 뭘 원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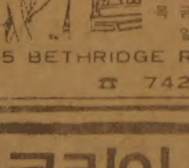
산동네로 오르는 길은 가파르고도 꼬불꼬불했고 여기저기 함부로 오물이 얼어붙어있고 연탄재가 분분했다. 젊은 아낙이 양동이에 하나 가득 연탄재를 이고 비탈길을 달려내려오다가 급히멈춰서더니 수지의 친칠라코트를 넘을 잃고 바라다보았다. 수지는 무안해서 어쩔줄 모르면서 지금이라도 이 어리석은 짓을 그만 둬야한다고 생각했다.

조규혁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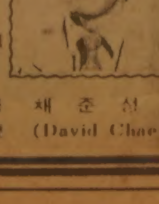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오리엔탈 팰레스2층
주 소: 529 BLOOR ST. W.
전 화: 533-3545-6, 533-1500

Grant Brown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한구
☎: 247-7161

SHANGHAI RESTAURANT
드디어 해삼탕 개시!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596-7311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박소영과 그 악단
목.금.토.일 저녁
월 화 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각종의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 대지, 상가, 사업체, 투자처, 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 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 무역회사 경영(밴쿠버)
★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 온타리오 부동산 브로커

전화 (B) (416)497 8900 채 준 선
(R) (416)633 7892 (David Chae)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海外여행 便乘범죄」 집중團束

犯法도피·마약·관세事犯등 6件

政府, 예방·단속對策 마련

정부는 15일 해외 문호개방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관련 범죄의 예방과 단속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 관련부처에 통보했다.

이 종합대책은 지난해 8월부터 실시된 국민의 해외여행 자유화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범죄를 예방, 단속하기위해 법무·내무·보사·노동부등 관계부처가 협의, 마련한것으로 범법자의 해외도피▲국제 범죄조직의 국내잠입▲외화등 국내재산 유출사범▲마약사범▲관세사범▲해외 취업부조리 사범등 6개범죄를 집중 단속한다는 것이다.

裵命仁법무부장관은 이날 『해외여행자유화에 편승한 각종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갈것이며 단속망에 미비점이 드러날경우에는 계속해서 관계부처실무자 회의를열어 새로운 대책을 보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같다.

◇범법자의 해외도피▲기소중지자·불구속피의자및 피고인·고액벌금및 추징금미납자중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자에 대한 출국정지▲거액수표부도에대한 은행의 고발이있거나 피해자로부터 특정인이 거액어음부도나 사기등의범법후 해외로 도피할우려가있다는 고소·진정이 있을경우 그내용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출국정지시키고 수사▲해외도피기도자의 재산도피혐의 수사

◇국제범죄조직의 국내잠입▲경찰·관세청·출입국관리소의 출입국사열및 검색강화▲국제테러분자등 범죄조직에대한정보및자료교환체제

◇외화등 국내재산유출사범▲외화불법거래자등 우범자 리스트작성▲출국자의 휴대품과 수하물및 신변검색강화▲외화사범의 자금출처규명

◇해외취업부조리사범▲해외취업희망자의 등록및 알선을 노동부에서 일원화하며 노동부 중앙직업안정소에 해외취업부조리사범신고센터를 설치,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취업알선등 특혜를준다.

◇마약사범▲마약전과자·우범자에대한 리스트를 작성하고 히로뽕밀매조직원의 동태감시 철저 ▲기지촌 주변 한미합동 단속 (월2회)

◇관세사범▲전과자·우범자 리스트작성, 출입국자및 선박에대한검색강화▲관세청에신고센터설치, 신고자에대한신분보장및포상

사랑의주머니 제작 李順子여사등 참가

대한적십자사는 세모를 맞아 15일상오 대한적십자사강당에서 대통령영부인 李順子여사와 대한적십자사총재부인 李愛子여사, 각 은행장및 국영기업체長부인 적십자사 사회봉사사업자문위원등 50여명이 참가한가운데 사랑의 주머니2천개를 제작했다.

오는17일 내무부를통해 일선에 근무하는 전국의 전투경찰들에게 전달될 이 사랑의 주머니는 통조림 고추장 과자 책 수건 칫솔 치약등 일용품10여점이 들어 있다.

民韓黨의원 부인들 光州나환자촌 위문

民韓黨의 柳致松 총재부인 安太榮여사를 비롯한 黨소속의원부인 40여명은 15일 全南光州市 소재 나환자촌인 서령원을 방문, 주민들을 위문하고 1백여점의 의류등을 전달했다.

협성教育재단 前직원 셋 "非理"협박 6천만원 喝取

【大邱】大邱지검은 15일 大邱협성교육재단의 비리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협박, 현금6천만원을 받아낸 전협성교육재단 총무과장 安炳東씨(45) 전협성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주원협씨(51) 전협성중교사 金성태씨(46)등 3명을 공갈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4일 낮1시께 大邱市 東區 新岩洞259의40 金씨소유 동대구장여관에서 협성교육재단이사장 申鐵旭씨의 대리인인 이재단산하 중학교 교장 黃모씨(47)에게 「사회정화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내용과같이 재단의 인사및 회계부정사실을 검찰청등 수사기관에 진정하겠다」고 협박, 현금 6천만원을 갈취한혐의다.【聯】

한국법률 문화賞에 金致善박사를 선정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李宅珪)는 제14회 한국법률문화상수상자로 서울大법대학장 金致善박사(60)를 선정, 15일하오5시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시상식을 갖고 부상으로 1백만원을 전달했다.

釜山 毒感만연

初·中學生 8%가 결석

【釜山】최근들어 감기환자가급격히 늘어나 釜山시내전체 초·중학생65만여명중 16.8%가 감기를 앓고있으며 환자중8%가 결석을 하고있는것으로 밝혀졌다.

15일 釜山시교위에 따르면 시내1백58개 국민학교 학생45만여명중 9개교학생 2만9천백62명, 1백3개 남녀중학교학생 20여만명중 9개교학생1만9천71명등 18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감기환자에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결과 전체학생중 국민학생은 17.6%인 5천2백50명이 현재 감기를 앓고있고 이중10.5%인 5백52명은 결석을했으며 중학교는 전체의 15.6%인 2천9백84명이 감기에걸려 이중3%인 80명이 결석을 한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학교중 안락국교는 전체학생 5천1백20명중 무려 28%인 1천4백36명이 감기에 걸려 이중31명이 결석했으며 낙천국민교는 감기에걸린 2백58명중 거의 절반인 1백17명(45%)이 이날 현재 결석했다.【聯】

牽引車에 치여 두어린이 慘變

【大邱】14일하오 2시45분께 大邱市北區邑內洞 漆谷애견사 앞길에서 부산삼화공업사 소속 부산9가1652호(운전사 윤광식·52) 견인차가 길을건너던 이마을에사는 김보경(6) 유연주양(4)등 2명을 치어 그자리에서 숨지게했다.【聯】

"궂은날엔 아직도 痛症이"

慶山 열차참사때의 母子… 咸明玉씨와 池龍鎭 어린이

◇慘狀의 현장　慶山열차사고때 龍鎭군 모자。겁에질린 龍鎭군이 피투성이가 된채 쓰러져있는 어머니 咸씨의 앞가슴을쥐어뜯으며 울부짖고있다。

"당국은 끝까지 被害者돌봐주는 誠意를"

龍鎭은 列車만봐도 달아나

그때 그사람

【釜山=金宗來기자】3백여명의 사상자를냈던 慶山열차사고때 (81년5월14일) 사고현장에서 피투성이가된채 쓰러져있는 어머니의 젖가슴을 쥐어 뜯으며 울부짖던 꼬마의 모습이 지금까지 생생하다.

당시 한국일보1면에 크게 게재됐던 모자의 사진은 그 모든사고들의 가슴을 뭉클하게했고 기사를 무색하게한압권의 뉴스였다.

당시 사망했을것으로 추측했던 어머니는 咸明玉씨(28·부산 南區 龍湖1洞394의17)로, 꼬마는 池龍鎭군(4)으로 밝혀졌었는데 그주인공들은 1년6개월전의 악몽을 잊은채 또하나의 새식구 定援군(2남·생후1개월12일)까지얻어 없는살림이지만 다복하게 살고있다. 咸씨는 사고당시 서울에사는 친정어머니(60)의 생일잔치를 차려드리기위해 3살이던 龍鎭군을 등에업고 서울행특급열차를 탔다.

7호차50번자리에 앉았던 咸씨는 龍鎭군이 칭얼대며 보채자 재우려고등에업고 객차안을 왔다갔다했다.

慶山역을 떠난 얼마가 후 지할때 좌석으로 되돌아와보니 大邱가는 승객이 앉아있어 망설이고 있는데 승무원1명이 빨간깃발을들고 8호객차로 뛰어가고 있었다.

뒷좌석의 20대청년이 승무원을 뒤따라일어서자 그좌석에 무심코앉으려는 순간『꽝』하고 천지가진동하는 굉음이 들렸다.

거의 본능적으로 등에업힌 池군을 양팔로 뒤로해 팍붙잡았고 3번인가 구르는가싶더니 정신을 잃었다.

한참후 왼쪽다리사이에 낀 池군의 울음소리에 깨어났다.

사방에서『사람살리란』는 신음 소리가 들려왔고『우리 이들은 무사하구나』는 생각이 들자마자 다시 기절했다.

그후 다시 깨어난것은 2시간후인 大邱의 한국정형외과 응급실안에서 였다.

다행히 池군은 얼굴과팔에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으나 咸씨는 골반골절상이란 진단이 나와 다음날 국립철도 부산병원으로 옮겼다가 7일후釜山鎭區 田浦洞 宋鳳煥신경외과로 이송됐다.

57일만에 퇴원, 2개월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때받은 보상금은 아들池군의 몫과 간호했던 가족들의 숙식비까지 합쳐 모두 1백5만원이었는데 궂은날씨면 허리·다리의 통증이 심해 2백여첩의 한약등 약값으로 다썼다.

K사 부산공장의 운전사인 남편 池敎昌씨 (31) 의 월급 25만원으로 단출하게 살고있는 咸씨는 龍鎭군을 다시 태어난것으로 생각, 튼튼히 키우려고 노력했고 지난달4일에는 둘째아들까지 낳았다.

요즘에는 사고후유증에다 산고까지 겹쳤는지 빨래를못할정도여서 아들하나 더생겼다고 좋아하는 아빠에게 미안할 뿐이란다. 咸씨는 또 『龍鎭이를 한동안 기차만보면 달아나며 울더니 지금은 조금나아졌어요. 그러나 기차를 탈때에는절대로 특급은 이용하지 않아요』라고 말했다.

咸씨는『대형사고가나면 피해자를 끝까지 돌봐주는 당국의 성의가 뒤따라야할것』이라고 체험담을 예로 들었다.

◇동생도 생기고　상처를씻은 龍鎭군 모자。어머니 咸씨는 최근 둘째아들까지 낳았다。【張曙文기자찍음】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政治人폭력등 嚴斷

金검찰총장 지시 能動·신속 搜査"

金錫輝검찰총장은 15일 『최근 고도의 품위를 지켜야할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사소한 다툼을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예가있으며 신성해야할 학원또는 운동경기장내에서 폭력이 난무하는 사례가 빈발, 국민의비난이 고조되고있다』고지적, 『이러한 사회지도층인사등의 폭력행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수사해 엄벌에 처하라』고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대검은 이지시에서『지금까지는 이러한 폭력행위에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고소·고발을 기다려 처리하는것이 관례처럼 되어왔으나 앞으로는 소극적인태도를 지양하고 신속히 수사권을 발동하여 엄단하라』고 강조했다.

대검이 이날 엄단을 특별지시한 폭력행위는▲정치인을 비롯한 사회지도층인사들에의한 폭력행위▲경기장내에서의 선수·임원·관중의 폭력난동행위▲학원내에서의 학생간의폭력·스승에대한 폭력행위등이다.

국제特急우편 업무 西獨등 3개國추가

체신부는 西獨 네덜란드 말레이지아등 3개국과의 국제특급우편 업무를 새해1월1일부터 취급한다.

元老조각가 金鍾瑛씨

원로조각가이며 예술원회원인金鍾瑛씨(사진)가 15일 상오8시 서울城北區三仙洞3가 144의2 자택에서 위암으로 별세했다. 향년67세. 17일 상오10시 돈암동천주교회에서 영결미사에 이어 예술원주최로 영결식을 갖는다. 장지는 龍仁천주교묘지. 연락처㉜1740。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찰거머리

서울市敎委 사무관 崔在夏씨

"地主설득에 솜씨… 校地조성 1人者"

서울시교위사무관 崔在夏씨(47·사진)에게선 「복덕방주인」이나 「공사장현장감독」같은 냄새가 난다. 동글넓적한 모자를 쓰고 낡은 옷에 허스름한 바지, 물론 넥타이도 매지 않았다. 게다가 여느 공무원처럼 사무실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기도 어렵다. 아침10시에 사무실에 잠깐 얼굴을 비쳤다가 퇴근시간에나 나타난다.

당장 불호령이 떨어짐직 하지만 그는 이런 차림을 계속 고집하고있고 상사들도 그런 모습의 그에대해 면역이 돼있는 모양이다.

그의 직책은 교지조성계장. 학교지을 땅을 사들이는 일이다. 학교부지를 선정, 소유주를 조사하는일은 물론 저당, 가차압된 땅을 푸는일, 그리고 그많은 소유주를 찾아다니며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받아내는일 모두가 그의 소관이다. 묘한 직책이 그를 묘한 차림을 하게 만든것이다.

학교 하나 짓는데 필요한땅은 약 4천평. 이정도땅의 주인은 대개30~40명. 많은땐 1백명이 넘는다. 이들을 일일이찾아가 박대를참고설득하는데는 짧으면 6개월 길때는 2년이상걸린다. 그래도 소유주가 국내에 있을때는 괜찮지만 외국에 이민이라도 간사람이면 일은더욱 복잡해진다.

이모든일을 崔씨혼자하는것은아니지만 부하들이 하다 안되면 그에게 넘겨진다. 그는「해결사무관」인 셈이다. 崔씨는 일단 일이넘어오면 「찰거머리처럼 달라붙는다」. 땅주인들은 이미 직원들의 통사정에 면역이 돼있어 섣부른방법으로는 안된다. 崔씨는 아예 땅주인집으로 출근한다. 문전되박도 수없이당했다. 그래도 열번이고 스무번이고 찾아간다. 대개는 그의 진드기같은 열성에 도장을 찍어주지만 32번찾아간 사람도있다.

33번째 찾아갔을때 『당신같은 찰거머리는 처음 보았소』하며 도장을 찍더라는것. 『「끈질기고 성실하게 상대방의 입장에서」란 마음가짐으로 땅주인을 설득합니다. 대개는 나라에서 땅을 사려한다면 값을 시가보다 올려받으려해 안타까울때가 많습니다. 소유주들의 입장을 이해못하는건 아니지만 교육은 국가의 百年大計란는 점에서 아량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그가 해 사들인 땅은 자그마치 23만7천평. 그러한 그같은 찰거머리가 있기에 콩나물교실이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든다.【方㕸俊기자】

82년도 인벤토리 스페샬

KAWAI PIANO·ORGAN 대매출!

날로 교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발전하고 있는 저희 회사에서는 파격적인
염가로 교민 여러분께 다시 대매출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단기분할 판매실시 (3~6개월)

이 기회를 꼭!

⊙가와이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에서 생산되고 있읍니다.
⊙가와이 피아노는 일본정부가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가와이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Upright 피아노를 생산합니다. (Anthony Liversidge 기고 "House & Garden"에서)
⊙가와이 Keyboard Centre 는 유일한 한국인의 딜러이며 항상 교민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를 하고 있읍니다.

KAWAI KEYBOARD CENTRE
MARKHAM PLACE MALL (Don Mills & Steeles)
Tel: (416) 881-8230
9350 Yonge St. (Hillcrest Mall)
Tel: (416) 883-9407
President · LUCAS YUN 윤 호 섭
Sales Manager · ALLEN DUMA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 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식 당

아리랑식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풀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그라나다(GRANADA)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사시미•생선초밥•덴뿌라 등…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갈비는 맛좋고 기름이 적은 삼복식품으로…,
★겨울김장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맛이 최고인 삼복김치로 대용하세요.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한인 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실 내 장 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천 우 여 행 사
SHERATON HOTEL
123 Queen St. W.
전화: 366-1188(R) 928-3335 김현두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메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불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2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시간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Professional Instruction 운전지도
온타리오 안전기구와 정부보증
전화 : 626-5715 Mr. McKenzie

의 류 수 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Professional Inventory ◉모든 Store 인수, 인계 일절 처리.
Inven tory Service of Canada
전화 : 665-8300 Nick.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New Toronto)
전화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장 의 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타 자 기

공병우 한영타자기 캐나다 총대리점
한글과 영문을 함께 칠수 있음.
전화 : 245-0995 김영수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치 과

Dr. Mark Kochman ◉전화: 233-9454, 233-4888
(월~토)9:00am-6:00pm, (목)9:00am-9:00pm
3101 Bloor St. W. Ste 203. "Season's Greetings"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redacted]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총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이경복회계사 C.G.A.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533-2361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한식·일식 요리사 구함.
경력 5년이상(요리사 자격증 요함)
전화 : 279-1039

경험있는 풀타임 여자캐쉬어 구함.
1666 Queen St. W. Tor.
전화 : 532-6143, 532-9638

좋은사람 구함. Full Time 주유소(Gain) 영주권자로써 1년이상 거주자. ◉877 Dundas St. W.(Bathurst St. 서쪽 300M)
내 방시간: 9am~3pm, 7pm~9pm

Part Time 유경험자 캐쉬어 구함.
전화 : 447-2116 (Mrs. 윤)

한식, 일식 여자요리사 구함. 3년 경력
658½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7-0432

경험있는 재봉사 구함.

Single needle, Double needle, Serging 머신.
◉좋은 보수와 좋은 이익.신청: Irving Posluns, Div. of Dylex.
647 Lakeshore Blvd. West. 3층.
◉월-금 8:00AM~5:00Pm

입주하셔서 할머니를 돌봐 주실분 구함.
전화: 275-0339 Mrs. 임
(오후 6시이후 전화 요망.)

도넛츠 가게에서 풀타임으로 밤일하실 여자분 구함. ◉다운타운 소재
전화: 861-1521, 222-3877

입주 또는 출퇴근하시면서 3살반된 애기 봐 주실분.
단, 담배피우지 않는분에 한함. ◉스카보로 북쪽.
전화: 496-1664 Mrs. 리

여자 가정교사 초빙
9, 11, 12학년 학생 가르쳐주실 여자분 선생님 원함.
전화: 694-1811, 691-8602

입주하셔서 애기 봐 주실분.
가족같이 애를 봐주시며 지낼분 환영함.
전화 : 669-6438

Koto일본음식점 Kitchen Helper 구함.(윈치지하철서 10분거리)
인터뷰 : 11월27일(토) 12월4일(토) 오후2시~5시.
5304 Yonge St. 전화 : 221-1621, 826-7676

경험있는 풀타임 요리사 구함.
낮 또는 밤. 1315 Steeles Ave.(Dixie)
Mississauga. Ont. ◉전화: 457-1900

밤12시에서 아침7시까지 일할 경험있는 가게 캐쉬어 구함.(Mac's Milk Store)
전화: 421-1089. 250 Laird Dr.(Eglinton)

Part time 스토아 캐쉬어 헬퍼 구함.
다운타운 지역
전화 : 488-1634

한식·일식·중식 겸한 요리사 3명 구함.
초봉 : $1,400 (일식·중식은 한국스타일 원함)
전화 : (403)252-2225 (캘가리)

가게를 파실려구요?
사람을 구하신다구요?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15.(1주일간)로 만족한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금호실업(박수웅)	224-2491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51-8835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21-9144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88 올림픽후원회	623-3674
승공문화협회	444-3658

개 인 지 도

피아노 교습생 모집
성심껏 지도. 초보자 환영. DIXON & KIPLING
전화: 243-7752(749-1316(낮·Answering Service) Jennifer Hong

양장, 재단 재봉 개인지도(윈치 & 베더스트)맞춤, 수선(남녀복 아동복 취급함)재봉은 하지만 재단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장

Tofel Michigan Test 준비
아동학습지도(다년간 지도경험) Honour B.A.In Economics
최미경 전화: 242-4745(오후 6시이후)

매 매

Van Truck - 77년도 Dodge 흰색
6만5천 Km. Excellent Condition
전화 : 533-2363 Mrs. 김

빌딩과 비지네스 매매.
잘 꾸며진 작은 레스토랑과 2층에 2 Bed Room 아파트.
Queen St. East.(of Dufferin)
아스킹 : $193,000
전화 : 363-2440.
G.R.Paterson Real Estate Ltd.

Winter 피아노. 새피아노 가격 $3,500 를 $2,300에 팔고자 함.
좋은 컨디션과 조율했음.
전화: 665-8233, 636-1430

그로서리·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아파트 빌딩앞. 주매상: $3,200. 좋은 가격에 양도하겠음
2350 Lakeshore Blvd. W. 직접 내방바람.

Large Variety Store for Sale
4,000sq.ft. Excellent Location in ETOBICOKE
Yearly Turnover : over $800,000 + Other Icomes
from Lottery Sales, Video Machines.
Beautiful, Clean, Atractive Store.
Must be seen to be appreciated. Private sale.
Please phone(after 10:30p.m.) 636-4338(George)
•꼭 오셔서 보시면 압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Take-Out 햄버거 비지네스 팝니다.
Income: $85,000/Y ◉주6일 영업. ◉하루12시간 오픈
문의시간: 오전9시~오후9시. 782-6893 Peter.

Take-Out Pizza 가게. Amherstburg. Ont.(윈저 20분거리)
주매상 $3,000·렌트 $350(모든것 포함) 월·일 문닫음. 아스킹 $40,000/$27,000 전화: 1-519-736-7515 Mr. 정(오후8시

주인이 정년퇴직으로 구두방과 빌딩매매
또는 가게렌트도 합니다.
803 St.Clair Ave. W. 전화 : 654-1455

▲Florida.Custom Built 2Bed Rm집.
중앙식 에어콘과 히팅.
대지 80'×125'. 1983년 2월에 입수.
아스킹: $27,500 US달라.
Clearwater에서 35분 북쪽 on U.S. 19. Beach에서 7분거리.
전화: 665-9115
▲휴양지 수페셜라이징한 몰개지 회사
Gross: 1 Million이상. 주인은 정년퇴직.
전화: 665-9115

수입 좋은 건물.(Bloor & Dovercourt)

디타치드. 방10개. 화장실3. 부엌2.
10%이자 아스킹: $79,900. ◉$10,000 다운페이.
전화: 298-7000 Silwin.
SILWIN REAL ESTATE LTD.

-"FOR LEASE"
-밀크스토아 장소. Brampton과 Oakville.
Oakdome Realty Ltd.-Realtor John W. Westerberg. 전화: 844-0363

Typesetting, 식자 Business하실 분

소자본으로 여자 혼자할 수 있는 업종임.

문의처 : 533-2364 Mrs. 김

▲FAST FOOD 비지네스.
Yonge St.에 있고. Richmond Hill 근방.
아스킹 $200,000
▲빌딩딸린 비지네스땅 $550,000
746-4360 Joe Tanzoe
Hollywood Real Estate Ltd.

Canada's Wonderland 근처의 Gift Shop 매매.
아스킹: $22,900+스탁. 전화: 746-4360 Joe Tanzos.
Hollywood Real Estate Ltd.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개인, 소구룹, 단체.
문의 : 742-4208 김유수 (출장·주말지도)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Victoria Pk. 서브웨이에 있는 3Bed Rm. 콘도미니움 아파트렌트 렌트: 월 $695(다 포함)
전화: 698-6415, 624-3849

1 Bed Rm. 아파트 렌트. 교통 편리함.
싱글이나 부부에 적합.(Eglinton & Mt.Pleasant)
전화 : 488-1634

새로 꾸민 지하실 2 bdrm(거실, 부엌, 목욕탕)
세 놓습니다. Bathurst와 St.Clair 지역임. 월 $280
출입구 따로 있음. Mrs.채 Tel: 651-5388

Burlington에 있는 새쇼핑 쎈타안에 있는 Space 렌트합니다.
버라이어티 스토아나 음식점 또는 딴 비지네스에 적합.
전화 : 233-6276 or 1-639-9255

집 매 매

디타치드 2층집. 3Bd. Rm. 응접실. Dining Rm. Family Rm.
(Fire Place) Calif Kitchen. 지하실 잘 꾸며져 있음.
Outstanding House.(Steeles & Warden) 475-0894(6시 이후)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연락처 : (416)461-3363(H). 463-7423(B) 송영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윈치)
전화 : 746-3458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 532-7094(B) 438 0628(R) Mrs.Oh

스타미용실(Mrs.김) ◉남녀커트·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화·토: 9am~8pm. (B)741-4410. 매주월요일만 동부영업: 10am~7pm
일요일 휴업. 전화: 267-0333(동부한국식품 플라자 내)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 생일. 파티케익등 전문(배달가능)
534 St. Clair Ave. W. 653-1149 Mrs. 배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3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얄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임윤식 (R)638-6919 ★강정숙 (R)244-8918 ★임분욱 246-4384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킴스 카메라.
각종사진 현상, 증명사진, 회갑·결혼사진등.
619 Bloor St. W. 534-1085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일·월요일 휴업"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비·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대일 오디오 비데오
T.V.. 전축 스테레오. 각종 전자제품
전화 : 270-0679. 279-3174 임문호

HOME COMPUTERS
▲판매및 수리 ▲파트타임 비지네스에 관심있으신분
전화바람. 전화 : 239-1698 오후6시~9시 (MR. 이)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에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